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6호



무아와 순수함은 모든 것을 경이롭게 만든다



청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4

여러분이 신실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들을 낳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르고 있지요. 에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스승이 오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고 공덕이나 신의 축복, 그 어떤 것도 얻으려는 마음 없이 모든 일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지요. 나는 그런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무아와 순수함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일지라도 동기나 내면의 순수함에 따라 사람들은 좋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에 따라서도 사람들은 함께 동참하고 도와주고 바라보는 것에서조차 긍정적인 느낌을 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실천하진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에고는 언제나 이익, 명성, 행운, 심지어 천상의 축복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이익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합니다. 우리 동기는 이렇게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중에는 이런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수행을 했어도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 입문했지만 매우 빠릅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 동안 수행했기 때문인지 매우 자연스럽고 순수하며 사심이 없습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무아와 순수함은 모든 것을 경이롭게 만든다

2 다채로운 이벤트

폴란드/ 영국/ 멕시코/ 가나/ 미국/ 대한민국/ 포모사

8 양서 입문

깨달은 스승의 위대한 사랑:
『신비한 동방 이야기』를 읽고

9 수행 일화

일상생활에서 지혜 계발하기

10/ 17 지혜어록

스승을 통해 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신성과 하나다/ 언제 어디서나 신을 경험할 수 있다/
신과의 직접 접촉함으로써 신과의 궁극적인 합일에 이른다

10/ 14 스승님의 농담

화장한 재를 세금으로/ 많이 판 작가

1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신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

15 이야기 세상

순수하고 믿음직한 영혼을 통해 얻은 교훈/
열린 마음이 구도자를 진리로 이끌다

18 골라 뽑은 수행문답

선지자 마호메트의 불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스승의 지혜는 신으로부터 나온다/
살아 있는 스승이 그 시대의 선지자이다

23 어린이 친구의 편지

나를 두 번 구해 주신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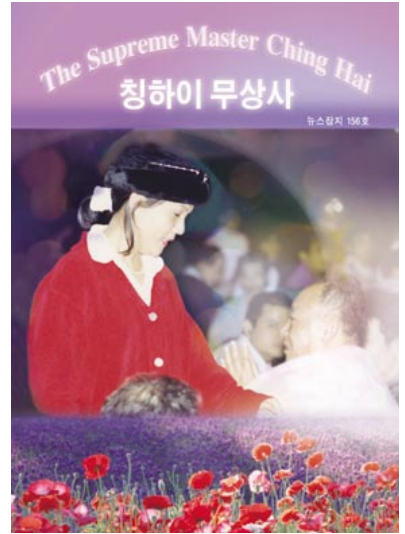
24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축복으로 쓰나미에서 살아남다/
신의 힘은 '정전' 되는 법이 없다

25/ 39 사랑의 실천

- 남아시아 쓰나미 구호 활동 특별 보도

스리랑카/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소말리아/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2004 쓰나미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37/ 42 매체 보도

홍콩 『애플 데일리』/ 인도네시아 『메단 데일리 뉴스』/
육감으로 쓰나미를 모면한 동물들/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동정심으로 쓰나미 희생자들을
구하다/ 재난 후의 절망이 희망이 되다

46/ 63/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MP3/ 책

47 사랑의 실천-전세계 자선 활동

토코/ 코스타리카/ 미국/ 캐나다/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포모사/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전세계 재난 구호 활동 일람표

62/ 감사 편지

일본 나가타 현

64 관음 웹사이트

65 전세계 연락처

7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승을 한 번 봐도 해탈한다

출판일자 : 2005. 8.20.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6호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소식

진리의 메시지가 폴란드에 퍼지다

베아타 루카제스카/ 로츠

[로츠] 2004년 11월 6일 폴란드 중부 로츠 동수들은 시내에 위치한 아스트로3 서점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법문을 소개했다.

당일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법문에 이끌려 아름답고 아늑하게 꾸며진 강연장을 찾았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비디오 강연이 시작되자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법문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는데, 특히 강연의 질의응답 부분에



서 하신 스승님의 말씀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승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행사를 간절히 기다려 왔으며, 스승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방편법과 완전 입문에 대해 궁금해했다. 며칠 후

일부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아스트로3 서점 비디오 강연회는 모두에게 경이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로츠 동수들은 성과가 풍부했던 이번 흥법 활동을 개최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지역의 구도자들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안배할 수 있어서 기뻐던 동수들은 내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영국 소식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귀중한 수행의 공부를 하다

서리 뉴스그룹

[서리] 생긴 지 10년이 되는 서리 센터는 최근 동수들의 수가 늘어나 매월 정기 선 행사 때마다 공간이 부족한 데다 수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서 센터를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스승님의 지혜와 사랑의 인도에 따라 1, 2층에 명상 공간이 마

련된 새로운 모습의 센터가 2004년 11월 21일 완공되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영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생긴 정보실은 매주 6일 동안 개방되며 자원한 동수들이 운영한다.

1층은 원래 비디오 가게였는데 수리를 거쳐 수리를 통해 명상홀과

응접실로 탈바꿈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 서리 동수들의 단결된 노력과 헌신, 시간과 에너지, 사랑으로 두 달 만에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이 진열된 아름다운 명상 공간이 되었다. 현관에서 바로 이어진 응접실에서는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간행물을 읽고



서리 센터의 응접실.

명상 수행에 대해 동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새로운 센터를 공사하는 동안 스승님의 힘은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동수들을 안내하고 인도했다. 예를 들어 동수들이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지름길’ 또는 ‘손쉬운 방법’을 궁리할 때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와 완벽함을 강조하는 스승님의 일깨움을 내면으로 전달받곤 했다. 이 과



대명상홀.

정에서 모든 자원자들이 진심으로 협력하고 일에 사랑을 쏟아 붓고 스승의 힘이 이끄는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다 보니 많은 난관들이 우연을 가장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방이나 문, 창문의 배치, 조명 위치, 벽 색깔 등이 모두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당초의 예상과 상상보다 훨씬 훌륭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동수들은 두뇌로 따

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서로 협력할 때 스승의 힘이 가장 잘 작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리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배우고 스승님의 사랑을 더 많은 대중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황금시대도 되었으니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나눔으로써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더 많이 퍼트려야만 할 것이다. 스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말이다.

멕시코 소식

천상의 법문이 칸쿤 영혼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다

멕시코 뉴스그룹

[칸쿤] 2004년 연말에 칸쿤 동수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의 법문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멕시코의 휴양 도시인 칸쿤 시에서 아름다운 비디

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허리케인 철인데도 스승님의 축복으로 날씨도 화창하고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강연회 전, 우리는 시내에서 광고 전단지들을 열심히 배포했다. 강연 장소인 한 사저의 집에서는 맛

있는 과일과 사탕을 죽 늘어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깊이 매혹된 나머지 참석자들 전원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30분 방편 명상을 마친 사람들의 밝고 행복한 표정을 보

고서 그들의 만족과 기쁨을 알 수 있었다. 방문객들은 계속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스승님의 천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했다.

칸쿤 동수들은 2004년 연말 비디오 강연회를 열게 해주신 스승

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내년에도 스승님의 도움과 끊임없는 사랑과 승고한 이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랐다.

가나 소식

가나의 다채롭고 영적인 채식 품평회

아크라 뉴스그룹



[아크라] 2004년 12월 26일, 영국의 전통적인 축일 중 하나인 복싱 데이(Boxing Day-선물 나눔의 날)를 맞아 서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문을 이웃 주민과 친지, 방편법 수행자에게 알리고 더불어 채식의 영적·물질적 이로움에 대해 홍보하고자 첫 번째 채식 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 앞서 동수들은 센터를 아름답게 꾸며 방문객을 맞이했

다. 간단히 개회 기도를 한 후 스승님의 생애가 담긴 짤막한 비디오를 상영했다. 이후 스승님의 지혜와 진실함, 순수하고 간결한 말씀에 매료된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많은 질문을 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자신의 일상생활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손님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미 방편법을 신청한 바

있는 한 목사는 스승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스승님이 신의 화신이자 우주 최고의 스승이며, 지구상에 나타난 신의 화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관음법문에 입문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트리려 지구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열망했다. 내빈 중 다른 성직자들도 스승님의 말씀에 감명 받아 나중에 다시 찾아와 방편법을 신청하겠다고 얘기했다.



비디오 강연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 방문객들은 동수들이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다양하고 풍성한 채식 요리와 콩과 옥수수 눈으로 만든 두유를 대접받았다. 방문객들은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높이 평가하고 채식 정보와 요리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박람회 동안 일부 참석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중 한 여성은 아크라 센터에 들어온 후 갑자기 큰 축복과 행복한 느낌을 받았으며 건물 안에서 온화하고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또 다른 여성 방문객은 스승님의 법상을 보자마자 곧장 그쪽으로 걸어가 그 앞에 서서 15분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 또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스승님의 비디오를 2편 이상 보고 싶다며 간청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동수들은 행사 내내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 소식

쓰나미 희생자를 위한 신년 기도

오하이오 뉴스그룹

[오하이오] 2005년 새해 첫날, 중서부 지역 동수들은 오하이오 센터에 모여 2004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쓰나미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선일 행사를 개최했다. 선 행사를 마칠 무렵 동수들은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양초를 서로 전달해 불을 붙인 후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크게 낭송했다.

사랑하는 스승님, 저희는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당신의 은총으로 천국으로 해탈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재해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와 친척,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평화롭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승님께서 세계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이미 많은 일을 하셨음을 알고 있기에 남은 사람들이 하루 속히 영적으로 각성하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읽는 동안 많은 동수들이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축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황금시대 2년 새해 첫날,



동수들이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양초를 들고 신년 기도문을 크게 낭송하다.

모든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 스승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대한민국 소식

밀양 시민들과 영원의 빛을 나누다

부산 뉴스그룹

[밀양] 2004년 12월 10일 부산 동수들은 인근 밀양시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빛’이라는 뜻을 가진 밀양은 충절과 호국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강연회 당일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신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수들은 평소처럼 놀라운 협동심을 발휘해 차분하게 행사를 준비했다. 개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날이 화창해지고 따뜻해지자 동수들은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 온 한 할머니는 스승님께서 영성의 깊은 뜻에 대해 아주 쉽고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감탄했다. 그녀는 천주교 신문에 영적인 글을 많이 발표해 왔는데, 그 일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한 스님은 연로한 한 사제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명상과 스승의 이로움에 대해 소개한 데 감동을 받아 스승님과 명상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디오 강연을 매우 주의 깊게 시청한 후 방편법도 배웠다.

밀양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청

중들은 아주 겸손하고 신실하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명상법에 흥미를 보였다. 강연회가 끝난 후 모두들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적극적으로 뉴스잡지와 축복 음식을 받고 집으로 향했다.

부산 동수들은 홍법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축복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황금시대 1년이 저물어 가는 연말, 동수들은 새해에는 대중들에게 더욱 큰 이로움을 줄 행사와 새로운 방안을 기획해 다른 이들의 영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신 또한 더욱 빨리 진보하고자 굳게 마음먹었다.



포모사 소식

평후 주민들에게 진리의 감로수를 전하다

평후 뉴스그룹



[평후] 2004년 12월 19일 평후 동수들은 평후 현 소재지인 마공시의 중정 초등학교에서 비디오 강연 흥법과 스승님의 출판물 및 예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소개했다.

2004년 중추절 기간 동안 낙성식을 가진 평후 센터 동수들은 이번 활동을 더욱 열심히 준비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다 타이베이, 신주, 타이중 동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행사는 순조롭게 준비되었다. 준비 도중 동수들은 평후 사람들의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실제로 모든 상점의 주인들이 스승님의 포스터를 가게에 붙이도록 가까이 허락해 주었다. 동수들도 많은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부지런히 전단지를 나누

어 주었다.

강연회 당일, 동수들은 중정 초등학교의 '미소 광장'에 스승님의 출판물과 그림, 만세등, 천의를 정성 들여 아름답게 전시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평후 현 의회 류천자오링 의장과 마공 시 왕치옌과 시장도 특별히 행사에 참석했다.

류 의장은 동수들의 따뜻하고 평화롭고 자상한 에너지에 감동했으며 동수들이 입문한 후 체험한 행복을 알고는 자신도 언젠가는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왕 시장은 "이 행사를 보니 10년 전 평후 청소년 국구단에서 스승님의 강연을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강연에서 동수들의 평화로운 기운과 참석한 많은 인파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스승님의 말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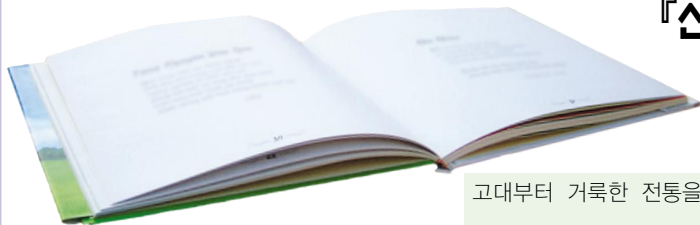
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수행을 하는 것이며, 자신도 앞으로 관음 가족에 합류할 수 있길 기대하였다. 왕 시장은 또한 무상의 법문을 평후 주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더욱더 아름다운 평후를 만들고자 하는 동수들의 고귀한 이상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에도 류 의장과 왕 시장, 일부 참석자들이 마치 삼매의 경지에 잠긴 듯 고요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게다가 수십 명이 방편법을 신청해서 더욱 기뻐다.

중정 초등학교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수많은 영성의 씨앗이 평후 섬에 뿌려졌다. 동수들은 희생 봉사 정신의 위없는 진리를 전하고 경험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깨달은 스승의 위대한 사랑!

『신비한 동방 이야기』를 읽고



고대부터 거룩한 전통을 이어받은 인도는 수천 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칭하이 무상사 등 많은 큰스승들이 현존하는 축복을 누리 왔으며, 문학 작품은 영적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 큰스승들과 무수히 많은 다른 성인들의 고양된 자장 덕분에 인도인들은 모든 종교와 믿음에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린 맥기 사저/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종교에 관용적인 인도인의 전통이 반영돼 있는 『신비한 동방 이야기』(Radha Soami Satsang Beas 출판사 발행)는 과거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의 행적에 얹힌 일화집이다. 이 책에는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다양한 배경 속에 ‘까비르’와 같은 유명한 스승에서부터 그저 ‘성인’이라고 일컬어진 무명의 수많은 스승들이 등장한다.

책에 나오는 각 이야기는 사제 지간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보여 주는데, 모든 이야기들은 스승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혜에 제자의 완벽한 신심과 헌신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수행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를테면 ‘뜨거운 석탄의 값’이란 이야기에서는 제자의 신실함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수행자는 끊임없이 매춘부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승으로부터 뜨거운

석탄을 얻어 오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석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춘부밖에 없다는 것을 안 제자는 그녀를 찾아가 석탄을 팔라고 한다. 하지만 매춘부는 그를 조롱하며 석탄의 ‘값’으로 그의 눈을 요구하고, 놀랍게도 제자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한쪽 눈을 빼서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그에게 석탄을 주었고, 그는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 석탄을 들고 스승에게 돌아온다. 스승은 붕대를 보고 사유를 물은 후 제자에게 붕대를 풀어 보라고 한다. 붕대를 풀자 그의 눈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신비한 동방 이야기』에는 이와 유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들을 읽은 후 나는 ‘스승님은 왜 당신 자신의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에게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곧 스승님이 너무나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스승님은 살아 있는 스승의 임무가 우리를 다시 신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긴 하지만, 당신 자신이 신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봇대’, 그 이상으로 불리길 원치 않으시는 것은 스승님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참고: 1999년 5월 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나는 『신비한 동방 이야기』 속의 일화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마다 거의 매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칭하이 무상사와 인류를 위한 그 무아의 노고에 대해 떠오르곤 했다. 살아 계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칭하이 스승님은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시고 각 개인의 인과 상황에 따라 이를 완벽하게 적용, 처리하신다. 스승님은 내적·외적 수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친구의 책임을



도록 알려 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보할 방법을 지도해 주실 수 있
는 유일한 분이다. 그뿐 아니라 스

승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스스로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안고 가
신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선물에 대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혜 계발하기

우창원 사형/ 영국 서리 (원문 영어)



2004년도에 서리 센터를 수리하는 동안 나는 센터의
정면 유리창에 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간판을
제작해 줄 업체를 찾는 일을 맡았다. 일을 진행하는
동안 4개 업체와 접촉했지만 한결같이 센터 예산을 훨
씬 초과하는 비싼 값을 불렀다.

나는 직관적으로 간판 제작비를 좀더 아낄 수 있
는 길이 있을 거라고 느낀 순간 동시에 ‘언제나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잠시 명상을 하
면서 스승님의 인도를 청했다. 그러고선 갑자기 뭔지
모를 강한 이끼림으로 전화번호부를 펴 한 군데 더 전
화를 해보았다. 그러자 기쁘게도 센터에서 간판 비용
으로 책정한 가격의 1/3을 부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정해진 예산으로 여러 개의 간판을 만
들 수 있었다. 이는 정말 신의 놀라운 안배였다! 이 경
험은 우리에게 신의 일을 하는 동안 언제나 내면의 직
관과 지혜를 따르고 우리의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새로운 서리 센터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알리
는 과정에서 우리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
각하곤 자동차 유리창에 붙일 스승님의 사진과 센터
연락처가 포함된 스티커를 디자인했다.

그러자 많은 동수들이 자동차가 스승님의 가르침
을 알리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 차에 붙일 스티커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센
터에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서리의 사형사저들은 시
내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줄
때, 직장에 주차시킬 때 스승님의 가르침을 무료로 알
리고 있다. 차량용 스티커를 붙여 놓자 동수들 자신
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를테면 선 행사에 참
가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길을 잃었던 동수들 중에는
센터 스티커가 붙은 차를 발견해 센터에 무사히 도착
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스승님의 지혜를 일상
생활에 적용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 세상에 봉사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다.



스승을 통해 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청하이 무상사/ 1992. 2. 27.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20



인도에는 신과 스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말한 민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과 나의 스승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누구에게 절을 할까? 나는 나의 스승께 먼저 절을 하겠다. 신은 나의 생사윤회에 개입치 않는다. 신은 나를 고해에 빠트렸지만 나의 스승은 나를 건져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신다. 스승은 나를 데리고 이 험난한 삶을 건너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나의 스승을 숭배한다.”

정말이지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신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겠으며, 어떻게 신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자신의 친척, 친구들을 구하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겠습니까? 오로지 스승만이 이런 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면의 신을 아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임을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른바 내면의 스승과 내면의 신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스승님의 농담



화장한 재를 세금으로!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임종을 맞은 한 사업가가 친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부탁 좀 들어주겠나? 내가 죽거든 화장시켜 줄 수 있겠어?” “그래, 그렇게 해주지. 그런데 화장한 재는 어떻게 하지?” 친구가 이렇게 묻자 사업가가 대답했죠. “재를 모두 봉투에 넣어서 국세청에 보내 줘. ‘이제 다 당신네 거요!’ 라고 쪽지를 써서 말이야!”



우리는 신성과 하나다

청하이 무상사/ 2000. 4. 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88



신은 수천 개의 태양을 함께 모아 놓은 것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인종과 민족, 배경, 종교를 갖고 있든 우리의 영혼을 행복과 만족으로 충만케 하는 음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중 누군가를 만지듯 신을 만져 보고 싶어하면 신은 우리 중 누군가로 화현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붓다, 마호메트, 시크교의 구루들, 크리슈나의 스승들 같은 존재들은 모두 우리가 사랑하고 보고 만지고 믿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 화현한 신의 화신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물질계보다 더 높은 천국의 차원으로 의식을 고양시키면 이런 스승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형사자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닌 지금의 일인 것입니다! 희소식은 우리가 이 체계 속에 있고 우리가 이 신성과 하나이며 우리가 보거나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인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신을 경험할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25. 미국 샌프란시스코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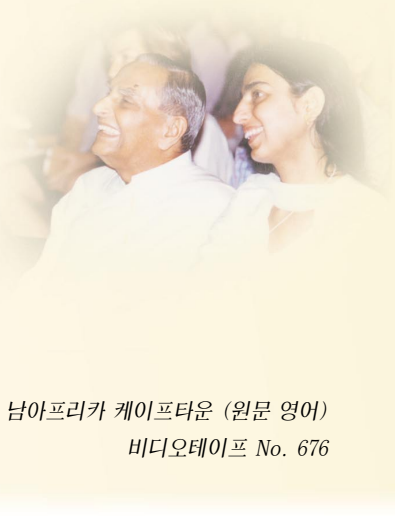
우리는 지혜안 또는 천상의 ‘오디오 센터’를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 신체, 느낌, 지성, 감성, 정신적 태도 및 주위 사람들 등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매일 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여러분에게 체험과 경이로움을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저 명상 중에 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만 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상할 때 좀 고요한 상태로 신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신은 대개 매일 어디서나 우리를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때로 사고가 나

로 되어 있거나 거의 자동차 사고가 나려던 찰나에 어느 누가 우리나라 상대방 차의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그건 바로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일자리를 얻어도 ‘어, 이것도 우연이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신이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혜안을 통해서만 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신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2. 1.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6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른바 우리의 죄를 결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기에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실수를 할 뿐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예수, 부처, 크리스나, 마호메트, 구루 나낙, 혹은 자이나교 스승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항상 보내십니다.

천사들조차 우리를 부러워하고 대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의 위대한 보호자라도 되는 양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알지 못할 때에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천사들은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문 후 언제든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천국의 높은 곳이나 다소 낮은 곳을 가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며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부지런히 수행하여 높은 등급의 깨달음을 얻어 천국에 간다면 모든 천사와 한없이 밝게 빛나는 위대한 모든 존재들이 양옆으로 서서 우리를 환영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레드카펫’ 보다 낫습니다. 만일 신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6월의 태양 아래 히말라야의 얼음 녹듯 녹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잣난아기처럼 느끼고 믿을 수 없이 놀라운 환희를 느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놀라운 체험이라 표현되는 것이 성적 황홀감인데, 그것도 이 천국의 환희에 비하면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여러분

이 그 체험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천국의 환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삼매에 들었을 때, 여러분이 신을 대면할 때, 때로 신은 상황에 따라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성모나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만 개의 태양에 둘러싸인 눈부신 광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수만 개의 태양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해탈되었기 때문에 이런 빛을 발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바로 그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우리가 빛이고 우리의 본질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빛입니다! 진동이지요. 빛이 좀더 압축된 형태가 소리입니다. 소리는 이 세상의 음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천국의 음악, 신의 말씀, 우주 언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우주 언어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언어를 이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적 진동, 신의 말씀, 천국의 음악을 자유분으로 공급받아 재충전되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문 후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180도로 변하기 때문에 때로 나는 그들의 입문 전후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요. 매일 명상을 많이 할수록 더욱 젊어집니다. 모든 세포가 새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보다 천진난만해지며 보다 총명해지고 보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성경에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처럼 되려면 ‘세례’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이에 대해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 자신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당신과 재결합시키며 부분이었던 우리를 다시 전체와 하나가 되게 하고 대양의 물방울을 거대한 사랑의 바다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1초도 걸리지 않으며,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의력과 생각이 신과의 분리감을 만들 뿐 우리의 진아와 신을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신과 분리시키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주의력을 다른 장소, 다른 차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 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내 뒤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몸을 뒤로 돌리면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경지에 적합한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 여러 채의 집을 보고 자신에게 더 좋은 집을 고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방이 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과 의식 수준에 따라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결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우리는 신의식(神意識)에 있고 눈 한번 깜박이는 새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 번 깜박이면 천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깜박이면 여기로 돌아오지요. 때로는 천국과 물질적 차원을 구분 짓는 경계가 너무나 흐릿해서 여러분은 그 경계를 계속해서 오갑니다. 아니면 대부분 스승들의 의식처럼 동시에 두 세계에 있습니다.

스승들은 동시에 두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물질세계와 천국의 경계를 없애는 초월적인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그들은 다시 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주 간단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내면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디에서 신과 연결되는지, 어디에 신이 거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만일 신이 우리 내면에 거한다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내면이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밖이 아닌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력을 밖으로 둘 때는 신이 물질적으로 화현한 모습들을 봅니다. 물질적인 신이 걸어나니고 우리 뒤나 옆에 앉아 있고 우리를 물질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농담하고 함께 웃는 신을 봅니다.

내면으로 향하면 우리는 모든 창조물의 실상을 보고 진정한 신의 모습을 봅니다. 신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수억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이름이 없지만 수천 개의 애칭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애인을 ‘히니, 여보, 애플파이, 설탕, 캔디’라고 부르거나 ‘나의 또 다른 반쪽,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자기만의 이름을 만들어 연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나의 국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도 괜찮습



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을 ‘신부(新婦)’, ‘영원한 사랑’, 혹은 ‘충실한 배우자’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신과 하나이기에 신을 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사랑하는 분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게 더 좋습니다. 미래의 약혼자, 미래의 남편에 대해 말만 많이 하고 그와 결합하거나 다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말을 들어 왔던 남편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혼의 행복은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알리거나 신

께 기도하는 등 신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 아름다운 노래와 같지만 영혼은 좀더 확실한 체험을 원합니다. 신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하지요. 나는 이 점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중 박수) 신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많이 판 작가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있어.” 첫 번째 친구가 다시 물었지요. “오, 직업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정말? 지금까지 뭐 좀 팔았어?” “팔긴 팔았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56/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6/jk1.htm> (미국)



순수하고 믿음직한 영혼을 통해 얻은 교훈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2004년 여름,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전에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작은 도시로 향했다. 고속도로에서 내리자 날씨도 우중충하고 시내로 가는 길도 몰랐다. 게다가 거리에는 지나가는 자동차만 몇 대 보일 뿐 길을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다.

몇몇 택시 기사들이 나를 불렀지만, 나는 택시를 타지 않고 혼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삼륜 자전거를 탄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시내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여러 도시에서 수차례 사기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차에 타라고 계속 권하면서 “1위안만 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위안이라고? 아 이스바 하나 값이잖아?’ 그래도 내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웃으며 “어차피 빈차로 시내로 들어가는 중이니까, 당신을 태워서 1위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꽤 진실되게 들려 한편으론 솔깃하면서도 완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말은 그럴싸한데 일단 시내에 들어가

면 내가 이곳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 달라지겠죠.” 그는 실망한 듯 나에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 결국 나는 그의 삼륜 자전거를 탔다.

시내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얘기했다. “시내 어디를 가든 1위안만 받을게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가 실직한 상태이며 미혼으로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분주한 발놀림과 햇볕에 그을린 팔과 등을 보면서 그가 성실한 사람이란 판단이 들었고, 이어서 동정심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시내에 도착했을 때 버스 정류장을 발견한 나는 내려서 친구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 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그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내려 주지 않으려 하면서 내가 내린다면 그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내 목적지까지 태워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냥 앉아 있으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나

는 그에게 5위안을 건넸다. 그가 잔돈이 없다면서 돈을 받지 않자, 나는 “이건 차비로 드리는 돈이에요. 잔돈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놀라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성실함 때문에 드리는 거니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돼요. 당신이 항상 순수하고 친절함 마음씨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는 악수를 하며 감사를 전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또 그 작은 돈이 그 기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나의 사랑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중에 나의 친구는 그곳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라서 택시를 탔더라도 4위안 정도밖에는 안 나왔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택시 대신 삼륜 자전거를 타게 된 것이 신께서 내게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배울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안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성실과 신뢰를 진정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열린 마음이 구도자를 진리로 이끌다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세계가 황금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모든 것이 새로운 활기와 느낌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최근 만난 신실한 구도자인 한 예비 입문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50대의 이 예비 동수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진리와 삶의 의미를 쫓아 수많은 법문을 수행했다. 천성이 순수하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그녀는 영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했다.

몇 년 전 그녀는 중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한 법문을 수행하다가 노동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런 민감한 화제에 대해 얘기할 때 그녀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기쁨을 나타내 나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기쁨은 모든 것을 구도 여정의 디딤돌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투옥시켜 반성할 기회를 준 정부 당국에 대해서까지 고마워했다. 노동 캠프에 있는 동안 매일 수용자들에게 보여 주는 선한 사람들과 선한 행위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그녀는 수행자라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길을 가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수행해 왔던 법문을 곰곰이 되짚어 보다가 그 법문이 다른 법문, 특히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을 생각하곤 자신이 따르는 법문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관음법문은 어떤 신성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어.” 나중에 노동 캠프에서 나온 후 그녀는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노동 교육과 같은 큰 타격을 받으면 대개는 신념이 흔들리거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꺾이기도 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더욱 열린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새롭게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많은 도반들로부터 끊임없는 압력과 모략을 당했으나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깨끗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해쳐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의 견본책을 받자 그녀는 최고의 보물을 얻은 것 같았다.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메아

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의 갈망과 결심은 더욱 그녀를 더욱 고양시켰다. 그녀는 진지하게 스승님의 모든 가르침을 공부하며 스승님이 다양한 종교와 종파의 가르침을 폭넓게 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스승님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스승님의 모든 책을 읽은 후 그녀는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한번은 동수들과 내가 그녀에게 같이 산에 놀러 가자고 권하자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다른 예비 동수를 데려왔다. 산에서 함께 명상하고 있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 모두들 흠뻑 젖었지만 그 두 예비 동수는 여전히 삼매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차마 방해할 수 없어 그들이 삼매에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삼매에서 나온 그들은 법희로 충만된 모습으로 명상할 때 온갖 아름다운 빛과 내면의 태양을 봤다고 얘기했다. 놀라운 것은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경지를 체험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그들이 수행했던 법문은 물질적으로만 성과가 있었을 뿐 이런 훌륭한 영적 체험은 없었다



고 한다. 이번 체험을 통해 그들은 하루 속히 입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 예비 사저는 현재 매우 좋은 체험을 하고 있고 내면도 더욱 밝아졌다. 명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지혜안에서 번개와 같은 섬광을 느끼기도 하고, 한번은 스승님께 빨

리 입문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정말 급하기도 하군요!”라고 하는 스승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느낌과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가장 힘이 크신 스승을 만나게 된 것에 펄듯이 기뻐하며 계속 입문을 고대하고 있다.

이 사저처럼 열린 마음과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깨달은 스승이 나타나 우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하신다!

지혜서록



신과의 직접 접촉함으로써 신과의 궁극적인 합일에 이른다

청하이 무상사/ 1999. 6. 9. 영국 런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2



신은 무형무상(無形無相)이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하고 신과 이야기하고 심지어 신에게 불평할 수 있도록 형이하학적 및 형이상학적 형태로 화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의 충고를 듣고 더욱더 지혜로워져 우리의 일상 문제들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인다워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고의 존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신을 알게 됐을 때에는 신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인간의 언어로, 또는 우리 마음의 직관을 통해 우리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를 더 높고 높은 곳으로 올려서 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가 신에 이르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마호메트의 불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청하이 무상사/ 1998. 6. 7.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6

질문: 저는 무슬림입니다.

스승님: 예. 환영합니다. 나도 그래요!

질문: 스승님께선 신이 우리 내면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스승님: 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당신의 선지자 마호메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종교는 신으로부터 왔다고까지 말했지요.

질문: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스승님은 또한 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상한 느낌도 듭니다. 제가 스승님이요 스승님이 저인 것 같아요.

스승님: 훌륭하군요! 영광이에요. (질문: 괜찮은 건가요?) 전혀 문제없어요.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그룹에 동참하세요. 모두들 똑같이 느끼거든요. (스승님이 청중들을 가리킴)

질문: 예. 뜻이 같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 참 기분 좋습니다. 정말 황홀한 느낌이에요!

스승님: 그게 정상이지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스승님: 아, 모두 털어봐 보세요!

질문: 예.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저의 인생이 온통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미술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묘를 하라고 했는데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그 위에 코란에 나오는 말씀을 아랍어로 적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저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달라졌고요.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곤 “그래, 바로 이거야! 넌 얻은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와! 아마도 해낸 걸 거예요!

질문: 그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승님: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지요? 그게 싫어요?

질문: 아니 좋아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제 마음이 절 속이는 건지, 진짜인 건지 모르겠어요.

스승님: 당신 마음이 속이는 거라고 해도 좋은 속임수이고 아주 유쾌한 환상이네요.

질문: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의 모든 꿈과 바람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은 제게 뭔가를 얘기하곤 나중에 와서 “이봐, 그게 이루어졌어!” 합니다.

스승님: 무엇이든지 즐기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할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을 보고 아주 기뻐하겠군요. (대중



박수) 당신이 자신에 대해 기뻐하면 선지자도 기뻐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걱정 말고 계속해 나가세요. 살면서 겪는 경험들은 모두 지나갈 것이며, 우리는 더 나은 또 다른 경험을 겪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만 오지요.

질문: 그럼 제가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스승님: 그들에게 그냥 코란을 믿는 친구들을 발견했는데, 이 친구들은 코란을 믿을 뿐 아니라 코란의 방식대로 산다고 얘기해 주세요. 선지자 마호메트를 믿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사귀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신실하게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 나가세요.

질문: 저도 그게 좋아요. 그게 더 말이 될 것 같아요.

스승님: 선지자 또한 코란에서 육식을 금하라고 언급했어요.

질문: 그래요? 몰랐습니다.

스승님: 가서 찾아보세요. 코란을 좀더 공부해 보세요. 좀더 공부한 후 부모나 친지들에게 말하세요. 정말 이젠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요. 아주 명명백백해질 것입니다. 선지자 또한 신자들 간에 서로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모든 추종자들의 행동은 결코 코란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코란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확실히 이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도 코란을 공부했었는데, 그 가르침은 다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신이 와 줘서 정말 기뻐요. 마침내 왔군요! 우리에게 다른 무슬림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스승님이 선지자 마호메트에 대하여 이렇게 해 박하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스승님: 그렇게 많이는 몰라도, 우리는 친구입니다. 마호메트는 지상에서 좋은 손님이 되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좋은 손님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행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상에서 좋은 손님이 되고 여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마호메트는 자신과 우리 모두 이곳에 손님으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님일 뿐이다.’ 라는 말 외에 그가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항상 신과 천국을 말했을 뿐 그 외의 것은 일절 입에 담지 않았어요. 전쟁 등 그 외의 모든 것은 불가피한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해했습니다. 어디든 그를 추적했고 그의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제자들은 때론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어 전투 동안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했던 선지자는 그건 고의가 아닌 사고 일어난 일로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은 그래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말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선지자의 가르침은 항상 올바릅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아주 유감스런 일이지만요.

질문: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스승님: 그와 같은 일이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다처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가 살아 있었을 때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분노와 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천국이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나에게 오라, 내가 보여 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당시 그랬듯이 그를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곤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치적인 유명세를 원하고 정부에 대항하는 위치에서 유명해지려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가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 당시의 어떤 정부라도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만약 선지자가 지금 환생하여 사람들을 이끈다면 이 시대의 정부라도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때론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정부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쩌면 싸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정부와 그 군대가 실수로 그냥 죽거나 자기편을 죽였을지도 모르지요. 예를 들면 무슬림들에게 칼을 겨누려다 갑자기 넘어지는 통에 자기 칼에 찔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슬림이 자기편을 죽였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이 도주하고 숨어야 했지요. 그와 그 추종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심은 아주 굳건했으며 그들은 푹푹 뭉쳤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되어 항상 경계하고 주의했습니다.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선지자는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형제의 아내와 자녀를 자기 가족처럼 돌봐야 한다. 단,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 규칙을 만들었던 겁

니다. “만약 너희가 형제의 아내를 두세 명 돌보게 되면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그 아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형제의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대해야만 공평한 거지요.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그게 형제애인 거지요. 물론 능력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또 다른 가족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 규칙은 지금도 공평하고 현명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른 처자식을 받아들이게 된 건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형제애의 정신에서 발로된 거지요. 만약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생명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의 아내와 자녀를, 혹은 그 아내나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의 아내와 형제의 아내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 주고 그들을 자신의 처자식처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자비로운 지침이었으며 그 당시로선 매우 지혜로운 방책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아내를 받아들이게 된 건 시대적 필요성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그저 돌보았던 것뿐입니다.

많은 스승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의 지혜는 신으로부터 나온다

청하이 무상사/ 1999. 6. 2. 노르웨이 오슬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1

질문: 이슬람교가 완전하고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코란을 읽어 봤는데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코란과 성경, 불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전도 가르침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인 거지요. 다른 실질적인 부분은 혼자서 신

에게서만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 마호메트는 신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로하고 내면으로 들어간 후에야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워져 다

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아지려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과 접촉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스승이 그 시대의 선지자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2. 2.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이란 TV와의 인터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6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호메트는 그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일한 선지자였지요.

그러나 신은 각 시대마다 수많은 마호메트를 보내 당시의 자녀들을 일깨우고 또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마호메트 당시에 태어날 만큼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마호메트의 후손과 같이 누군가 일깨워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호메트의 후손들,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스라엘이나 터키에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대로 신의 다른 인종 자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어디에나 태어납니다. 그것이 천국의 뜻입니다.

질문: 당신은 이슬람교가 신이 마호메트를 통하여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예, 그것은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마호메트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과 온전한 신이 서로 결합해 그분의 물질적인 틀, 이른바 ‘마호메트’를 통해 말씀

모든 종교는 신에게 속한다

질문: 만약 모든 다른 종교가 신에게서 나왔다면 신으로부터 온 서로 다른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까?

스승님: 그들 모두는 한 가지, 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모두가 살아 있는 동안 신을 찾으라고 말합니

다. 코란은 모든 종교가 신에게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질문: 그러나 그 원본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성스런 코란 또한 이슬람만이 유일한 종교이며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스승님: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100



퍼센트 옅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호메트는 신으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믿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슬람만이 유일한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스승이 아직 살아 있었고 진정한 가르침을 직접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 전의 다른 종교들은 그 어떤 것이든 이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종교가 진짜였습니다. 직접적인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있었고 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스승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을 신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그가 창시자이든 최후 계승자이든 간에요. 그럼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고 진정한 종교인 거지요.

신을 만나면 모든 종교 논쟁은 끝난다

질문: 그러나 그것은 코란의 가르침과 상충합니다.

스승님: 그건 당신이 신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개념, 이론을 놓고 논쟁하는 거지요. 당신이 눈을 감기만 하면 나는 당신이 즉각 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과 대화할 수 있고 당신의 알라 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라고요. 당신은 매우 종교적이고 현신적이군요. 당신의 신심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에 대해 말하고 최후의 선지자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가 보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다시는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신을 보고 싶습니까? 빛을 보고 싶습니까? 나는 당신이 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알라 신은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 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코란은 진정한 가르침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호메트와 동등한 수준, 혹은 최소한 마호메트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무척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간에, 심지어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종교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죽

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유한한 지식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의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논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며 끝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전에는 불교가 최고라느니 기독교가 최고라느니 하면서 사람들과 논쟁을 했었지만 지금은 겸손합니다. 신의 이름 앞에 겸손합니다.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큰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나는 그저 신이 이해하도록 허락하신 것만 이해할 뿐이며, 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배워 나가야 합니다. 선지자라 해도 영원토록 배워야 합니다. 신은 무한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전체를 알 수도 있고 각 부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부분을 알려 하면 무한대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신을 알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게 옳다거나 그르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라 해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코란을 이해한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당신 나름대로 이해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지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직접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나를 두 번 구해 주신 스승님

구술: 중국 본토의 루루루 어린이
기록: 루루루의 할머니 (원문 중국어)

존경하는 스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사는 루루라고 합니다. 올해 7년 9개월 됐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두 살 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 그때 며칠 동안 죽은 채 누워 있었고 엄마는 날마다 우셨대요. 아빠는 스승님의 제자인데 아빠와 그 친구 분들이 스승님께 저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스승님은 저승사자에게서 저를 구해 내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많은 돈을 쓰고도 살지 못하는데, 저의 어린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주사를 맞아도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 의사 선생님이 큰 검사를 하시더니 심각한 B형 간염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도 걱정이 대단하셨고 저도 기분이 우울해서 그날 밤에는 악몽도 꾸었습니. 그런데 그 다음날 전에 잃어버렸던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찾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목걸이를 걸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스승님이 계시니까 난 두렵지 않아. 난 아무 병도 없어. 난 건강한 사람이야.”

사흘째 되던 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아무 병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제 몸에 B형 간염 항체까지 생겼대요! 저와 우리 가족, 저를 걱정해 준 사람들의 감사와 흥분된 감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흥분되어 큰 소리로 외쳤고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전지전능하신 스승님, 당신이 제 생명을 또 구해 주셨군요!”

전 평소 아빠와 함께 채식을 하는데, 우리 둘 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채식의 좋은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 저에게 고기 요리를 해주세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엄청 아프지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아요. 스승님께서 우리 엄마가 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곧 입문해서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스승님께 큰 존경심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스승님의 건강과 평안, 성공을 기원합니다.

2004. 11. 12.
당신의 아이 올림



스승님의 축복으로 쓰나미에서 살아남다

구술: 후신 사형/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기록: 와후디 사형/ 인도네시아 메단 (원문 인도네시아어)

반다아체에 살고 있던 후신 사형은 2004년 12월 4일 방편법을 전수 받았다. 그는 최근 전화를 통해 2004년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발생한 쓰나미에서 살아남아 현재 아내와 다섯 살 된 아들과 함께 메단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다.

후신 사형 일가가 살고 있던 지역은 밀려드는 파도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그들은 정말 운 좋게 재난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후신 사형은 평소 일요일엔 아침 9시쯤 집을 나서서 이번 쓰나미로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일터로 가곤 했다. 그러나 쓰나미가 덮친 2004년 12월 26일에는 일터 부근에서 식구들과 같이 아침을 먹기로 하곤 가족들을 데리고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이 덕분에

그들은 대재난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후신 사형은 이것이 스승님의 축복과 도움 덕택이라고 믿으며 스승님께 매우 감사했다. 쓰나미가 닥치기 고작 몇 주 전에 방편법을 배웠는데도 스승님은 그와 가족을 구해 주셨다. 후신 사형은 스승님을 만나고 방편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여겼다.

신의 힘은 ‘정전’ 되는 법이 없다

중국 본토 예비 입문자 (원문 중국어)

2004년 7월 11일 아침 7시 반쯤 나는 다른 세 명의 예비 입문자와 함께 스승님의 1999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세계 종교회의의 강연 DVD를 보고 있었다. 그때 난로 위에서 물이 끓고 있었기 때문에 주방 환풍기도 켜져 있었다.

잠시 후 이웃이 우리 집에 왔다가 당혹스런 표정으로 얘기했다. “이상하네! 다들 정전이 돼서 나도 국수 반죽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 집 환풍기는 어떻게 돌아가지?” “그 집은 산업용이고 우리 집은 가정용이니까 그렇겠죠.” 나는 별일 아닌 듯 말했다.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일을 보러 나갔다가 어젯밤에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됐었다고 하는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다. 우리는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고 스승님의 DVD를 실컷 다 보았다. 다 보고 나자 오후 1시쯤 되었는데 그때 우리 집도 전기가 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마을의 정전은 10일 저녁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나는 문득 신과 스승님의 축복으로 스승님의 DVD를 계속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바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신께 감사드리고 한편 스승님께어서 우리를 입문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드렸다.



2004년 12월 26일 아침,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저를 뒤흔든 리히터 9.0의 강진으로 엄청난 파괴력의 쓰나미가 발생해 인도양 주변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만 명에 이르며, 사상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우리는 명상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도와야 합니다. 돈과 음식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직접 전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천국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므로 이 효과는 보다 오래갑니다. 또한 이런 직접적인 접촉은 이재민들에게 더 큰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은 남아시아 쓰나미 대참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희생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직접 전하였다. 동수들은 자비심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바다 건너 수천 마일을 날아 재해 지역에 도착해 스승님의 보살핌과 관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은 재해 지역에서 관음 수행자들이 펼친 구호 활동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다.

스리랑카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다

포모사 구호 팀 (원문 중국어)

남아시아 쓰나미로 인해 스리랑카에서는 최소 4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북서 해안을 제외한 전 해안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2월 28일 포모사 구호 팀의 세 동수들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도착

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및 지원 유형을 파악하곤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다음날엔 스리랑카 연락인의 안내를 받아 국제 적십자사



마타라의 종합병원에 생수와 의약품품을 전달하다.

콜롬보 지부를 방문했다. 적십자사의 분석에 따르면 재해 지역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그 중 많은 지역이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도로와 통신 시설이 두절되었다. 피해 지역의 주유소도 홍수로 파괴된 상태라서 그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료를 챙겨 가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물자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재민들의 정신적 충격 회복도 마찬가지로 절실한 상황이었다.

동수들이 도움이 시급한 이 방대한 지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호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스승님은 때맞춰 필요한 일꾼들, 이곳 연락인이 일하는 회사(The Finance Co., Ltd.)의 직원들을 보내 주셨다. 이 회사는 스리랑카 전역에 30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회사의 총수인 G. D. 랏나팔라 씨는 구호 작업에 직원들을 동원 시켰다. 동수들과 직원들은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구호 방법을 논의한 후 각지의 직원들을 통해 다양한 부락의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또 의약품과 생수, 기타 구호 물품을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놀라운 힘에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30일 아침, 새로 포모사에서 온 동수들이 합류한 가운데 구호 팀은 랏나팔라 씨와 그 동료들의 안내를 받아 트럭 1대 분의 생수와 의약품품을 가지고 피해가 심각한 휴양지 함반토타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갔다. 그런데 해안선 부근의 재해 지역에 다다랐을 무렵 구호 팀의 버스 기사가 갑자기 급선회를 하더니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으며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해안을 빠르게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 또한 해안에서 정신없이 달려 나오고 있었다. 나중에 연락인에게 들은 바로는 인도네시아 해저에서 리히터 5.0 규모의 지진이 또 한 차례 발생했는데 또 다시 쓰나미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한 것이라고 한다. 동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곳 스리랑카 국민들의 절망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스승님의 사랑을 이재민들에게 전하는 구호 활동에 더욱 굳은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젊은 그래픽 전문가인 하샤 씨는 밤새워

자신의 사진관에서 구호 팀 버스의 양면에 걸 스승님의 법상 현수막을 제작해 주었다. 이 청년은 단호하게 보수를 사양했으나 동수들이 가지고 있던 스위스 군대 칼을 주자 고맙게 받았다. 하샤 씨는 그 다음 날 구호 작업에 함께 참여했으며 활동이 끝난 후에는 입문을 신청하였다.

12월 31일 구호 팀은 마타라의 종합병원을 방문해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파악했다. 부설 병원이 수십 개나 되는 이 병원의 관계자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관심과 보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많은 주민들이 동수들이 가져온 음료수와 의약품 등의 짐을 병원에 내리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각자 스승님의 사진 한 장과 견본책자를 받고선 그 자리에서 일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는 이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실로 큰 위안을 주었다!



스승님의 견본책자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들.

병원측은 사탕과 장난감, 아동용 그림책, 병상용 패드, 약품과 혈액을 보관할 냉장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물탱크 등 필요한 품목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구호 팀은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이 물품들을 구입하고 다른 한 조는 연락인의 동료인 테니스 씨와 함께 부근 해안의 상황을 알



긴급 구호 물품을 구입한 동수들.
트럭에 실린 것은 마타라의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적은 물탱크.

아보러 갔다. 제2조는 임시 보호소 두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식품과 일용품이 필요하다는 이재민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코코넛 오일과 쌀, 소금, 라면, 향신료, 감자 등을 구입했다. 구입하는 식품이 이재민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안 도매상인들은 일꾼들에게 신속하게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하고 큰 트럭에 동수들을 태워 배달해 주었다. 그날 저녁 구호 팀은 보호소에 있는 700명의 이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

제1조의 동수들은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하려 했지만 마타라의 재고가 바닥이 난 탓에 장난감 500개, 냉장고 5대, 물탱크 38개 등 일부 밖에 구하지 못했다. 이에 두 조는 콜롬보로 돌아가 남은 물품들을 계속 구입하기로 했다.

며칠간 동수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물건을 구했으며 지역 동수들과 임시 보호소의 요구를 참고해 일부 실용품도 더 구매했다. 앞서 냉장고를 구입한 상점의 주인은 친절하게도 자신의 집을 물품 보관 창고와 휴식 공간으로 쓰도록 제공해 주었다. 동수들은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안배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이어서 우리는 1월 5일 병상용 패드와 슬라이퍼, 기타 물품 등 1차 구호품을 병원에 전달했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 사탕과 과자를 나누어 주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다.

연락인과 동수들이 콜롬보의 M/S 테크노메딕 사에서 의료 기기를 사고 있을 때 이 회사의 상무와 직원들은 구호 팀의 성심 어린 마음에 깊이 감동해 48,000루피 상당의 일회용 외과용품과 기타 품목들을 무료로 기증했다. 또 물품을 구입하는 동안 구호 팀은 이 회사의 전화와 팩스를 무료로 사용해 포모사의 동수들과 연락을 취할



구호 팀 대원들과 트럭 기사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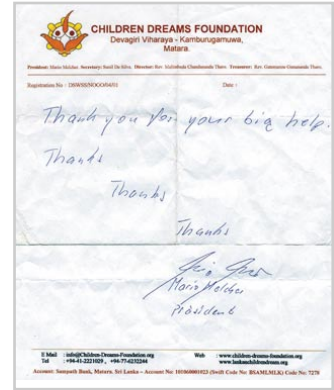
또 한번은 몇몇 사자들이 콜롬보로 여성용품과 속옷, 장난감, 그 외 물품들을 구입하러 갔다. 물품을 사고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물건을 실을 차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상점 주인이 관대하게도 자신의 밴으로 물품들을 무료로 배달해 주었다. 이 또한 스승님의 신성한 힘이 다시 한번 드러난 일이었다.

나중에 사형사자들은 다시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임시 수용소 일곱 군데에서 모기향과 모기장, 플라스틱 패드, 침대 시트, 여성 위생용품, 속옷, 슬리퍼, 유아용품, 장난감, 화장실용품, 카레 분말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분배하고, 다른 한 조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함반토타 지역의 기지 병원에 의료 기기와 약을 전달하고 한 정부 기관에 일용품들을 전달했다. 그 중 일부 수용소는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해서 대량의 구호품을 나르는 데 상당한 시간과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물품을 운반했던 트럭 주인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운임을 깎아주기까지 했다. 피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은 금세기 들어 최악의 재해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돕고 지원하는 등 무아의 사랑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 수용소 안의 '어린이 꿈 재단 (Children's Dreams Foundation)'에 파견돼 있는 재단 이사장 마리오 멜처 씨는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에 매우 감동한 나머지 즉석에



'어린이 꿈 재단'의 마리오 멜처 이사장(오른쪽)은 스리랑카 쓰나미 이재민들에 대한 청하이 무상사의 지원에 대해 동수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서 청하이 무상사께 원조에 대한 감사 편지를 썼다. 멜처 씨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동수들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수용소에 구호품을 전달해 준 데 큰 감동을 받았다.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 쓰나미 구호 활동을 마무리한 동수들은 다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암파라 & 파나마 병원을 방문해 심전도 측정기와 분무기, 진단기 세트, 목발, 침대 시트, 베갯잇, 매트리스 덮개용 원단 등을 기증했다.

구호 활동 중 동수들에게 큰 도움을 준 랏나팔라 씨는 인터뷰에서 이재민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여러분이 우리를 돕고 지원하러 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스승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 주러 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도움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총만한 우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승님에게서 온 것이지요. 여러분의 도움은 신의 사랑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는 내면에서 작은 번갯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작은 불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에너지지요.

우리는 이러한 기부를 통해 전해 준 여러분과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는 우주적 사랑임이 틀림없습니다. 무한한 근원에서 왔을 테지요. 그리고 그 근원은 여러분의 스승님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주의 큰 에너지라면 그곳에서 와야 할 테니까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몸조차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직 이 사랑의



에너지만은 남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스승님과 같은 근원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은 새로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여러분처럼 깨달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여러분의 스승님이 보여 주신 깨달음의 길을 알아야 하며, 이런 사랑을 느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면의 고통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구호 활동을 통해 포모사 구호 팀원들은 랏나팔라 씨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신실함과 인정, 사랑의 정신, 서로를 돕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스승님의 끊임없는 인도와 놀라운 안배로 구호 작업은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스리랑카 동수들은 물질계의 무

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며 관음법문에 대한 신심도 더욱 굳건해졌다. 동수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포모사 동수들이 사랑과 자비를 전하라는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빨리 스리랑카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스리랑카 동수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관음법문에 입문하고 싶어하거나 최소한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좀더 많이 알고 싶어했다. 이렇게 해서 남아시아 쓰나미 구호 활동을 통해 스리랑카에는 무수히 많은 영성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

인도

스승님의 자비심이 인도 남부 해안 지역에 물결치다

싱가포르 구호 팀 (원문 영어)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외해 인도양에서 발생한 리히터 9.0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근해의 많은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그 중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 중에는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해 소식을 접한 싱가포르 센터 구호 팀은 12월 29일 인도 첸나이 지역에 도착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 남쪽으로 330km를 여행해 해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어촌 나가파티남(Nagappatinam)에 도착했다. 해안가에 위치한 집들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재민들은 학교나 절, 교회, 모스크 등과 같은 공공장소로 대피한 상태였다. 대피 장소에서는 정부나 민간 기관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구호 팀 중 유일하게 타밀 말을 하는 사형의 도움으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동수들은 25km 떨어진 이재민 수용소의 150여 가구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수들은 이재민 수용소를 방문한 후 즉시 인근 마을에서 빵과 과자 등을 구입해 밤늦게까지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에도 여러 조리 기구들과 식품을 구입해 수용소에 대피해



참혹한 피해를 입은 나가파티남 마을을 현장 조사하고 있는 동수들.



완전히 파괴된 나가파티남 마을의 집들.



여러 마을의 급수지 현장 답사.

있는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구호품을 받은 주민들은 매우 고마워했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광범위한 까닭에 동수들은 구호 팀을 둘로 나누어 한 팀은 남쪽으로, 다른 한 팀은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2005년 1월, 북부 구호 팀은 카라이칼(Karaikkal) 시에서 20km 북쪽에 위치한 한 피해 지역을 방문하였다. 동수들은 42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답사하는 동안 마을 대표들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고 그날 밤 필요한 식품과 조리 기구들을 신속하게 구입해서 다음날 분배했다. 그후 며칠 동안 구호 팀은 카라이칼 시 부근의 여러 마을을 조사해 식품과 주방 도구, 개인 위생용품, 침낭, 담요 등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재민들은 구호품을 받고 매우 기뻐했으며 스승님과 동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구호 팀이 카라이칼 시 주변의 한 외딴 마을에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동안 질서 유지 및 피해 상황에 대한 통계 정보 수집을 위해 나와 있던 지역 참사관과 공무원, 경찰관들은 모두 동수들의 구호 활동을 크게 반기며 이토록 큰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동수들은 두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필기용품을 나누어 주었다. 어린이들은 펴듯이 기뻐하며 스승님의 선물에 감사하였다. 구호 팀은 이 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 트랑케바(Tranquebar)의 무슬림 가정들도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했다.



터미어를 하는 동수가 마을 주민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다.



쓰나미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도움과 영적 위안 모두 필요하다.

한편 남부 구호 팀은 약 300km를 여행해 타밀나두 주의 최남단인 카니야쿠마리(Kanniyakumari) 지역에 도착했다. 이 지역의 15개 마을이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카디아파타남(Kadiapattanam) 마을의 1,800가구는 가구당 5kg의 쌀만 있을 뿐 식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구호품을 배분 받고자 질서있게 줄 선 어린이들.

구호 팀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조사한 후 가구당 쌀 10kg과 콩 5kg, 토마토와 가지 각각 1kg을 공급했다.

페리아빌리아(Periavilia) 마을에서는 학생들에게 문구와 교복용 천이 필요해 이를 즉시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대부분 마을의 이재민들이 기본적인 식품과 식수는 공급받고 있었지만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공급은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구호 팀은 분유와 우유병, 영양 음료 등을 구입해 페리아빌리아, 차나빌라이(Channavilai), 마누카리(Manukari), 콜라첼(Colachel) 등 4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교구의 신부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영양 식품들을 제공해 준 것은 우리 협회가 처음이라고 얘기했다. 마을 주민들은 구호품과 스승님의 건본책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에 크게 감사드렸다.



한 목사가 쓰나미 이재민들에게 스승님과 스승님의 구호 및 지원에 대해 소개하다.



한 목사와 마을의 자원 봉사자들이 분배한 구호품을 정리하고 있다.



태국

쓰나미 구호 활동 중 전세계의 의식 고양을 목격하다

방콕 뉴스그룹



2004년 12월 26일 아침, 태국의 남쪽 안다만(Andaman) 해안에 위치한 푸껫(Phuket), 팡아(Phangnga), 크라비(Krabi), 트랑(Trang), 사툰(Satun), 라농(Ranong) 등지는 5~10미터 높이의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어 수만 명이 사상, 혹은 실종되었다. 이에 방콕 동수들은 즉시 구호 팀을 조직해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큰 피해를 입은 팡아 지방의 해안 부락들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다.

12월 28일, 구호 팀은 방콕에서 약 700km의 여정 끝에 타쿠아파(Takuapa) 지구의 카오락(Khao Lak)에 도착했다. 주방 도구들과 음식을 가지고 간 동수들은 타쿠아파 구청 근처의 왓얀야오(Wat Yan Yao) 학교에서 매일 네다섯 개의 대형 냄비에다 음식들을 준비해 3개 조로 나뉘어 병원, 절, 구청 등에 있는 이재민들과 다른 단체의 구호대원들에게 배달했다.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기는 우리 구호 팀이 처음이었다. 사체를 발굴하면서 육식하기 어려웠던 자원봉사자들은 동수들이 해주는 채식 요리를 반색하며 좋아했다.

다음날에는 더 많은 동수들이 구호 팀에 합류해 빵과 시리얼, 잼, 우유,オート밀, 대통밥, 참깨가루 등의 식품과 매트, 냄핀, 방석, 속옷, 베개, 화장지 등의 구호 물품을 위로의 말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전했다. 또한 얌야오와 방마웅 사원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구호 단체에는 시체 발굴할 때 감염을 막아 줄 수술용 장갑과 마스크를 제공했

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용기와 영감을 얻어 피곤함도 잊은 채 새벽 3, 4시경까지 일하고 잠시 두어 시간 쉰 후 다시 다음날 아침 일정을 시작하곤 했다.

12월 30일, 한 사제가 노트북 컴퓨터 5대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 3대, 그 외 컴퓨터 장비들을 가지고 왓얀야오에 도착했다. 이로써 다음날부터 사망자의 친척들에게 시신을 확인해주는 정보센터가 만들어졌다. 동수들은 의사들이 검시한 사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컬러 사진으로 현상해 게시판에 붙여 친척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학 조사 팀에 합류한 일부 동수들은 부검 후 사신을 찍고 신원 확인서를 붙이고 사체를 감싸서 매장하는 한편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시 결과 기록을 같은 포맷으로 전환하기도 했



다. 태국 동수들은 이 밖에 12월 31일에는 방콕 센터에서 선일 행사를 개최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명상했다.

크라비의 쓰나미 피해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한 탓에 이동하느라 부족한 이곳의 다른 단체 구호 팀들은 고생스럽게 일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수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수행을 한 적이 있는 일부 자원 봉사자들은 스승님의 힘을 느끼기도 했다. 크라비 지역 행정국 수장의 보좌관인 솜삭 키티라쿨 씨는 희생자들을 위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참사에서 가족과 재산 등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슬픔을 강인함으로 승화시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자비심과 온정이 충만한 자원 봉사자들은 피해 지역을 계속 순회하며 생존자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베풀었으며, 모든 구호 기관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진심으로 이재민들을 걱정하며 구호 활동에 온 힘을 쏟

았다. 동수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황금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의 의식이 고양되었음을 목격하고 스승님의 무한한 힘에 대해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내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었던 태국 구호 팀은 1월 3일 방콕으로 돌아오면 서도 전혀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았다. 많은 태국 동수들이 이번 쓰나미 구호 활동을 통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인도네시아

선구적 구호 팀이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다

인도네시아 & 포모사 구호 팀 (원문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역사상 네 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발생한 2004년 인도양 쓰나미로 인해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의 수백만 명이 갈 곳을 잃었으며 사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 지역 중 인도네시아 최북단에 있는 수마트라 섬의 아체 지방은 지진과 해일, 두 재난이 한꺼번에 덮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재민들의 요청에 따라 각국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 회원들은 대량의 구호 물품과 의료품을 기증하는 한편 피해 지역 깊숙이 들어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료 지원 및 여타 사랑의 구호 활동을 펼쳤다.



제1차 아체 구호 활동

2004년 12월 26일 오후, 매단과 자카르타 동수들은 매체를 통해 엄

청난 해일로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체 지역이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신속하게 구호 팀을 조직하고 생수와 우유, 쌀, 도



쓰나미가 발생한 이를 후 매단 동수들이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의 중심지인 반다아체로 구호물자를 운반하고 있다.



동수들의 구호 활동을 도와준 피해자 하디 박사.

시락, 의약품, 새 옷, 기타 물품들을 구입해 12월 27일 밤 록세우마웨 시로 보냈다. 이어서 28일에는 두 명의 동수와 친척 한 사람이 지역 운전자 세 명과 함께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에 대량의 연료를 가득 싣고 록세우마웨(Lhokseumawe)에서 반다아체까지 설새없이 달렸다. 가는 와중에도 구호 팀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었다.

반다아체에 도착하자 밤 10시였다. 하지만 전기가 끊어지고 달빛조차 없는 암흑 속에서 구호 팀은 차량의 전조등에만 의존해 사위를 가늠했다. 지역은 적막했고 참기 어려운 사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동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 시간 동안 시내를 순회한 끝에 하디 박사 일가를 만나게 되었다. 하디 박사는 대참사가 일어난 이후 구호 팀 중에선 우리 구호 팀을 처음으로 봤다고 얘기했다. 구호 팀은 하디 박사의 가족들이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후 하디 박사와 그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생존자들에게 구호품을 나눠 주었다.

12월 30일 의약품과 가지고 도착한 다섯 명의 자카르타 동수들은 처음의 지역 동수 팀에 합류해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반다아체의 모든 보호소를 방문해 쌀과 쌀 국수, 과자, 초콜릿, 식수, 기타 식료품을 나눠 주었다. 이재민들은 동수들이 가져온 구호품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재난 이후에 외부에선 처음으로 찾아온 데다 절실히 필요한 물자와 더불어 배려하는 마음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역 군인들과 이재민들은 큰

감동을 받고 구호품 배포를 도와주었다. 땅거미가 지고도 동수들은 이재민이 모여 있는 다른 지역들을 계속해서 방문해 이불과 따뜻한 옷가지 등을 전달했다.

아체 적십자사의 안내와 도움 속에 우리 구호 팀은 이재민에게 모든 구호물자를 순조롭게 나누어 주고 일을 마쳤다. 구조 대원들은 운송 수단과 연료를 가져온 덕분에 모든 물품들을 이재민의 손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또한 이 지역의 다른 구호 대원들이 사체로 오염된 물을 건너다니고 못이 잔뜩 박힌 잔해 위를 걸어 다니고 맨손으로 사체를 옮기는 등 악취 나고 위험천만한 여건 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본 동수들은 즉시 매단 센터에 연락해 보호용 장갑과 장화, 외과용 마스크, 시체 포장용 비닐 등 시급한 물품을 대량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이후 몇 차례에 걸쳐 10톤이 넘는 두 번째 구호물자가 매단에서 반다아체로 전달되었다.

1월 1일 다섯 명의 자카르타 센터 동수들이 매단에서 록세우마웨로 날아



이재민 보호소에서 구호품을 분배하는 모습.



왔다. 이들도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반다아체로 직행해 앞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던 동수들을 도왔고, 다른 한 조는 록세우마웨부터 시작하는 북부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두 조 모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가지와 과자, 의료품을 분배하고 시신들을 치우는 군인들과 다른 작업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제공했다. 대부분의 도로들이 진흙과 붕괴 잔재들로 덮여 있어서 구호 물품들을 수송하는 게 쉽지 않았으나 이런 어려움도 구조 작업의 진척을 막을 수 없었다. 특히 나중에 포모사에서 열 명의 구조 대원들이 도착하자 구호 작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후속 활동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처럼’ 여기는 정신을 가슴에 새긴 포모사 동수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인도네시아 재해 지역에 도착해 몇 개 팀으로 나뉘어 이재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1월 1일 메단에 도착한 열 명의 1차 포모사 구호 팀은 반다아체 지역의 사상자 피해가 심각하며 의료진과 의약품, 일용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포모사에 이런 지원을 요청했다. 재해 지역에 전염병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동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반다아체의 이재민들에게 계속해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 나갔다.

반다아체의 지휘 본부에 도착한 동수들은 먼저 스승님의 사진을 붙이고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틀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스승님의 사진을 붙인 후 훨씬 시원해지면서 천지에 진동하던 사체의 악취도 사라졌다. 마치 보호막이 외부와 동수들을 분리하는 듯했다. 이어서 구호 팀은 다시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 주었다. 또 다른 한 조는 이 지역 적십자사의 안내를 받아 구호 물품을 나눠 주고 의료 설문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조사

하는 일을 맡았다. 분배를 맡은 2조는 인도네시아 동수들과 함께 반다아체 부근의 이재민 캠프와 보호소를 찾아가 옷가지와 슬리퍼, 과자, 생수, 쌀, 라면, 칫솔, 치약, 비누, 녹두, 모기장, 속옷, 여성 위생용품 등과 같은 물자를 제공했다.

1월 2일 15명으로 구성된 2차 포모사 구호 팀이 메단에 도착했다. 1차 구호 팀으로부터 대략의 상황을 들은 2차 팀도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메단에 있는 이재민 캠프에서 부상자 치료를 돕고, 또 다른 한 조는 록세우마웨 지역 동수 팀에 합류해 록세우마웨에서 시글리(Sigli)까지 140km에 걸친 수많은 해안 지역으로 시급한 의약품과 지원 물품을 수송했다. 2조는 메단의 서해안 지역도



새 옷을 받고 동수들에게 즐겁게 손을 흔드는 아체 이재민들.



포모사와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아체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구호물자들을 이재민들에게 순조롭게 전달했다.





동수들의 사랑의 활동에 감동을 받은 아체의 군인들과 이재민들이 구호물자 분배를 도와 주고 있다.

찾아가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이 지역은 정세가 불안정하고 곳곳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스승님의 은총과 지역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동수들은 대량의 물자들을 많은 캠프와 보호소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나중에 포모사 동수들은 피해 지역의 보고를 받고 다급한 의약품을 한 차례 더 준비했다. 그리고 약사 동수들은 특별한 항생제와 지혈용 항공 봉대, 심각한 감염을 방지하는 기타 물품들을 준비하기도 했다. 1월 4일 포모사 외교부 NGO 국제사무위원회의 도움으로 의사와 약사 등 열명의 동수들이 메단으로 날아왔다. 차이나 항공은 이들 의약품들을 무료로 수송해 주었다.

1월 5일 이들 동수들은 반다아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역 동수들과 함께 싱가포르 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 도착한 의료 구호품과 지역에서 구입한 파상풍 백신, 홍콩 센터에서 보내온 220kg 상당의 약품을 므라보(Meulaboh)로 운송해 그곳의 NGO 구호 협력 센터와 여러 적십자 병원에 전달했다. 므라보 또한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여서 운송과 통신 시설이 크게 파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포모사 동수들은 헬리콥터와 작은 보트를 타고 이 지역에 도착해야 했다.

그 매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황폐해진 므라보는 밤에는 전기가 부족해 암흑 도시가 되어 버렸다. 구호 팀은 한 적십자사 캠프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그곳 직원들이 동수들의 구호 작업을 안내하고 도와주었다. 구호 활동이 끝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메단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스승님의 놀라운 안내로 다시 한 번 싱가포르

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메단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공항을 떠날 때 포모사 동수들은 우연히 수마트라 북부 투자부의 임원인 토니 레오나르도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원조를 제공한 포모사 정부와 자선단체들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감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종합하면 여러 나라의 동수들과 지역 적십자사, 기타 정부·민간단체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이번 구호 활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적십자사와 협력해 재해 지역의 재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활동 내용은 다음 뉴스잡지에 게재된다.





홍콩 『애플 데일리』

2005년 1월 6일 (원문 중국어)



수시간 동안 보이는 건 시신뿐

인도네시아에서 『애플 데일리』기자 보도

[통신원 보도] 황폐화된 아체 시를 떠나 온 이재민들이 친척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가슴 에이는 장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메단 공항의 일상사가 되었다.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가 발생한 후 아체의 많은 지역이 외부와 고립되었지만, 구호물자는 이재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피해 지역에 제1차 구호물자를 전달했던 자원 봉사자들은 인류 종말의 날을 방불케 한 끔찍했던 광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메단에서 자라 현재 보험 일을 하고 있는 43세의 중국 화교 리지엔 씨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알려진 수행 단체의 인도네시아 지부 소속원이기도 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속한 국제협회는 쓰나미가 발생한 다음날인 12월 27일 음식, 옷, 의약품 등 약 5톤 가량의 구호물자를 메단과 아체 사이에 있는 록세우마웨에 전달했으며, 리 씨와 몇몇 자원자들은 트럭으로 물자를 전하기 위해 피해 지역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당시의 참상은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리 씨는 말했다. 그의 구호 팀이 아체로 출발한 지 30분 후 여기저기서 사체와 몇몇 생존자들을 보곤 즉시 내려서 구호품을 나눠 주려 하자 이재민들은 사양하며 오히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아체

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

산 사람을 보고 놀라다

그날 밤 10시, 구호 팀이 아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이 칠흑처럼 어두웠다. 트럭의 전조등이 비추는 곳마다 도로에 널려 있거나 나무와 지붕에 매달려 있는 등 사체만 보일 뿐 생존자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계속 전진해 나갔다. 새벽 3시 경 달이 밝게 빛났지만 달빛에 보이는 건 시체더미뿐이었다.

다시 30분을 달린 후 비로소 5, 6명의 생존자를 만나게 되었다. 구조 대원들이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자 현지 주민들은 누군가가 갑작스레 나타난 것에 몹시 놀라면서도 구호 대원들을 너털너털해진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호 팀은 바로 군대를 찾아가 차량 연료를 요청하고 부상자들을 군용 트럭에 실어 공항으로 데려갔다. 리지엔 씨는 구호 활동 도중 아체에서 본 끔찍한 광경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인도네시아 『메단 데일리 뉴스』



综合 2005년 1월 15일 (원문 중국어)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아체 지역에 5억 루피아 상당의 구호 물품 기부

【통신원 보도】 지진과 해일로 야기된 유례없는 참사로 북쪽 수마트라와 아체에서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현재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곳을 벗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번 재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구호 물품과 식량이 국내로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자들은 바로 구호 팀에 합류해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 및 매장, 건물 잔해 정리 등의 구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피해 지역 복구 작업이 곧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온 35명의 자원자들은 피해를 입은 아체의 여러 지역에서 구호 물품과 의료품, 식품, 의류 등을 이재민들에게 나눠 주

고 의료 시설을 설치해 환자들을 치료했다.

협회는 의약품, 기도복, 슬리퍼, 의류, 과자, 생수, 쌀, 컵라면, 치약, 칫솔, 비누, 녹두, 모기장, 속옷, 여성용품 등을 포함한 5억 루피아 상당의 구호품을 미츠비시 트럭 4대에 실어 재해 지역에 전달했다.

협회는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간다푸라 지부와 연합해 Samalanga, Jeunib, Plimbang, Peudada, Jeumpa Kuala, Jangka 등 6개 소구역(Kecamatan)의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피디(Pidie) 주의 7개 읍도 구호 물품을 받았는데 그 중 시글리(Sigli)시는 'Simpang Tiga' 구호 센터와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 10번지에 위치한 시글리 구호 센터, 두 곳이 물품을 직접 전달받았다. (Karno/H)

『메단 데일리 뉴스』

2005년 1월 6일 (원문 중국어)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 구호 팀은 어제 아체 주의 판데라자 마을의 시라줄 후다 모스크에 있는 쓰나미 이재민들에게 식품과 기타 구호품을 전달했다. (에디 수카르노)



台湾清海天上师救援协会成员昨日于亚齐省美仑PANTE RAJA村之SIRAJUL HUDA清真寺分发粮食及其他物资给地震海啸灾民，图中尹进义正把粮食交给当地村长之情景，从台湾来的35人道救援队伍领导人为官俚佑。(END SUKARNO)



소말리아

역경을 이겨낸 구호 활동

케냐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12월 남아시아를 황폐화시킨 인도양 쓰나미는 수천 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소말리아 동부와 북동부의 소도시와 촌락들을 덮친 거대한 파도로 최소 2백 명이 죽고 수백 대의 어선이 실종됐으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애타게 구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국제 자선단체들은 소말리아에서 구호 작업을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케냐 센터의 동수들은 교전 상태에서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과 위험에 굴하지 않고 2005년 1월 5일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 도착해 피해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모가디슈와 마르카 시장들의 적극

적인 도움으로 동수들은 폐허가 된 어촌과 빈민가, 병원, 학교, 고아원 등지를 방문해 금전적 지원과 함께 생필품을 나눠 주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재민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원조를 받고는 기쁜 얼굴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도로 상황과 다른 장애물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동수들은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 또 1월 8일과 9일에는 BBC 방송국과 모가



재해 지역에 나눠줄 밀가루 포대를 트럭에 싣는 모습.



소말리아 마르카 시장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마르카의 한 학교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다.



빈민가의 이재민 방문.



마르카 병원 원장이 기부금을 받은 후 동수들과 악수를 나누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사랑과 지원을 보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르카의 '여성·아동 병원' 원장이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지원금을 받고 기쁜 얼굴로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고아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다.

디슈 라디오 방송국에서 소말리아의 쓰나미 이재민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과 지원을 뉴스로 방송하기도 했다. BBC 특파원은 위험한 소말리아로 와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동수들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인터뷰 도중 “정말 신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케냐 동수들은 소말리아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구호 물품과 더불어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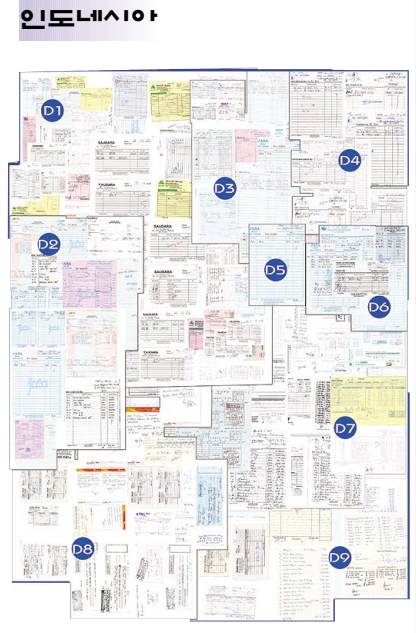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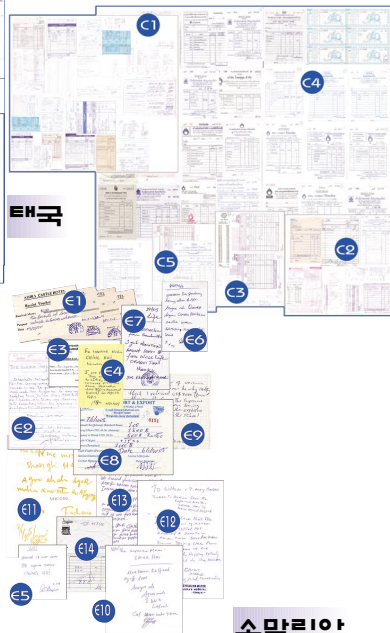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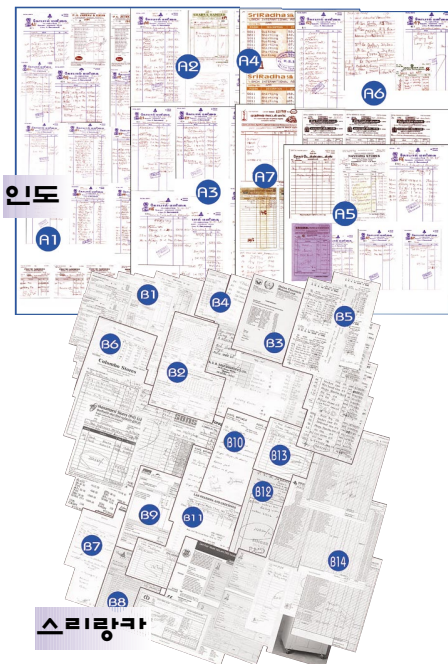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강타한 직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동수들은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의 재해 지역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펼치며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 활동 내용은 CTiTV 연예 채널의 인터넷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상' 제124, 125, 126편에서 시청할 수 있다.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2004 쓰나미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국가	지출 내역	금액	부록
인도	*식품 (쌀, 야채, 빵, 조미료, 식용유, 녹두, 우유, 분유, 영양식품) *가정용품 (침대 커버, 플라스틱 통, 매트) *개인 위생용품 (세숫비누, 치약분말, 세탁용 세제) *문구 및 교복용 천 *기구, 식탁용 식기, 운임비	인도 루피 1,462,311.21 (미화 33,849.80 달러)	A1~7
스리랑카	의료기구, 물탱크, 냉장고, 식품, 물, 침대 시트, 침대 매트, 장난감, 학생용 문구, 화장실용품, 옷, 슬리퍼, 모기향, 모기장, 운임비	스리랑카 루피 6,065,613.41 (미화 60,000달러)	B1~14
태국	*주방 도구, 식품 (쌀, 팟콘, 빵, 잼, 과일, 야채, 음료수, 콩단백, 우유, 시리얼, 향료) *의복 (속옷, 흰 천, 옷) *생리용품, 샌들, 약품, 운임비	태국 바트 237,483.25 (미화 6,061.34달러)	C1~5
인도네시아	*식품 (우유, 콩 종류, 쌀, 설탕, 시리얼, 빵, 생수) *의복 (티셔츠, 바지, 속옷) *텐트용품 (모기장, 이불, 매트, 무슬림 기도용 매트) *구호 작업용품 (마스크, 장화, 장갑) *의약품, 운임비, 포장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552,632,312.00 + NT\$181,820.00 (미화 65,047.45 달러)	D1~9
소말리아	*밀가루, 운임비, 경호비 *성금 (재해 복구 위원회, 종합 병원, 여성·아동 병원, 고아원, 난민 캠프, 어촌 등과 학생 급식비)	미화 20,000 달러	E1~14
	총계	미화 184,958.59달러	





육감으로 쓰나미를 모면한 동물들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차이나 데일리』2005년 1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야생 동물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수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2004년 12월 쓰나미에서 완벽하게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대목은 우리의 동물 친구들이 앞으로 닥칠 재난을 감지하는 육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진과 다른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전 전해지는 미묘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 준다.

스리랑카의 관리들은 스리랑카 국민 4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해일이 야생 동물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죽은 코끼리도 없고 심지어 토끼 한 마리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재난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육감이 있어서 언제 일이 발생하는지 아는 거죠.”라고 스리랑카 야생 동물부의 라트나야크(H.D. Ratynake) 부부장은 말한다.

쓰나미는 스리랑카 최대의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인 알라 국립공원을 휩쓸었지만 코끼리, 표범, 사자, 자칼, 악어 등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해일, 지진, 화산이 발생하기 전 새들은 날아가고 개들은 울부짖으며 동물은 떼를 지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는 역사 기록에 새로 덧붙여질 내용이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 발생 전에 개들이 짖고 새들이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실험실이나 야외 세트장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면의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동물원의 매튜 반 리에롭(Matthew van Lierop) 씨의 말이다. 여기에 아프리카 동물군에 대해 몇 권의 저서를 발표한 바 있는 클라이브 워커(Clive Walker) 씨도 이에 동의한다. “야생 동물, 특히 새들은 어떤 현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들이 곧 닥칠 재난을 감지한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동물이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후각과 청각 등의 감각에 의존해 약탈자와 다른 위험들을 피하는 것은 확실하다. 스리랑카 해변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물에게 육감이 있다는 주장은 더욱 큰 힘을 얻는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고대 문명에서는 코끼리와 올빼미, 그 외 다른 동물들을 신성시 여기며 그들에게 특별한 상징을 부여했는데, 아마도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옳았던 것 같다. 그리고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와 같은 참사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낮은 생물’로 여겨져 온 우리 동물 형제들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동물은 매우 똑똑하며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총명하므로 우리와 동등합니다.” (DVD No. 712 ‘동물들의 신성한 지성’에서 발췌)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동정심으로 쓰나미 희생자들을 구하다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년 쓰나미가 강타한 아시아와 동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동물들이 재난으로 죽게 된 사람들을 구조한 사실들은 동물에게 지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내재돼 있음을 증명해 준다.

쓰나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태국 푸켓의 한 해변 휴양지에서는 해일이 밀려들 때 코끼리 한 마리가 해변에 있던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 코끼리는 원래 어린이를 위해 공연하곤 했었는데, 거대한 파도가 덮쳐 오자 사육사는 어린이들을 코끼리 등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http://www.freerepublic.com/focus/f-news/1310876/posts>)

또 쓰나미로 파괴된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의 한 여인은 왕뱀의 인도로 홍수를 건너 자신과 이웃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아체 주의 반다 아체에서 옷 장사를 하던 리자 씨는 쓰나미가 자신의 집을 파괴하던 당시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집 밖으로 휩쓸려 떠내려가던 중 중상을 입은 이웃을 만나게 되었다. 아홉 살짜리 쌍둥이를 필사적으로 안고 있던 그녀는 “제발 우리 쌍둥이를 구해 주세요. 애들만 무사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리자 씨는 즉시 아이들을 등에 업었다. 그녀가 급류 속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전봇대만한 뱀이 물살을 타고 강둑 쪽으로 헤엄쳐 가는 게 보였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뱀을 따라서 안전한 곳에 이르



렀지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젓 먹던 힘까지 다해 겨우 조금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http://www.commandpost.org/nk/2_archives/018357.html)

인도 남동부의 판디체리에서는 더욱 더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졌다. 쓰나미가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 때 한 집에서 키우던 개가 일곱 살짜리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당시 다른 가족들은 밀려드는 파도를 피하고자 바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가족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아는 가장 안전한 장소, 즉 해안에서 40야드 밖에 안 떨어진 콘크리트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가족들이 안전한 언덕으로 피난했을 때는 이미 바닷물이 발뒤꿈치까지 밀려 온 상황이었다. 그때 집에서 키우는 ‘셀바쿠마’라는 누렁이가 소년을 쫓아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개는 어린 주인의 옷을 물고 입



으로 쿵쿵 찌르면서 소년을 언덕 위로 끌고 올라왔다. “셀바쿠마가 제 셔츠 깃을 물고 끌고 갔어요.”라고 아이는 말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셀바쿠마와 나란히 걸어오는 것을 보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저 개는 나의 신이예요!” (<http://www.cbsnews.com/stories/2005/01/02/world/main664271.shtml>)

동물의 용감함과 사랑, 관찰력에 대한 이런 실화들은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도 신의 품성과 인간과 같은 큰 자비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재난 후의 절망이 희망이 되다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로 인한 손실과 파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재난 속에서도 헌신적인 행위와 사랑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에 대해 신속하고 놀라운 기지로 대처해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 중 집에서 고아들을 돌보던 한 스리랑카 목사는 12월 26일 아침 아내의 경악에 찬 외침을 듣고 보니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28명의 아이들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작은 모터보트에 태웠다. 보트의 엔진이 한번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목사는 간절히 신께 기도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한 번 만에 시동이 걸렸다. 이어서 목사와 그의 조수는 보트를 조종해 위험한 높은 파도를 헤치고 결국 모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http://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4/12/30/MNG63AJ2411.DTL>)

또 한 스리랑카 남자는 파도가 밀려들기 전에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해 주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즐기고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사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독서벽을 게으름의 구실로 여기고 종종 야단치곤 했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 ‘나쁜 습관’이

12월 26일 아침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그날 그는 다가오는 나룻배가 바다에서 불규칙적으로 요동치는 것을 보았다. 큰 파도도 일지 않았는데 배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때 문득 책에서 이런 현상이 쓰나미가 닥칠 징조라는 것을 읽은 기억을 떠올린 그는 즉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며 달렸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른 조치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준 그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 밖에 이번 재난에 얽힌 기적 중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분쟁이 중단된 것일 것이다. 오랫동안 대립하던 양 진영은 한순간에 무기를



내려놓고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하는 공동의 목표 속에 하나가 되었다. 스리랑카의 타밀 타이거 반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공무원들에 협조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 '평화의 순간: <http://www.nytimes.com/2005/01/04/international/worldspecial4/04lanka.html?oref=login&th>)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반군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군에 대한 발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서로 협력했다. (인도네시아 '사격 중지 협의: <http://www.cnn.com/2004/WORLD/asiapcf/12/31/tsunami.peace/index.html>)

또한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기구들은 더욱 넓은 가슴으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기로 했다. 쓰나미 발생 전부터 고아들을 후원해 온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는 구호 대상을 보다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사르보다야는 쓰나미로 고아가 된 11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수용해 보살필 것이며 19세 이하의 모든 여성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구적인 주택과 학교 시설을 짓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http://www.sarvodaya.org/>)

한 말레이시아 남자는 쓰나미로 친구들과 떨어진 후 아무데도 다치지 않은 채 구조되었다. 그는 바다에서 홀로 2주간을 떠돌며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한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신께 저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http://www.cnn.com/2005/WORLD/asiapcf/01/11/tsunami.survivor.ap/index.html>)

인도 외해의 한 섬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선 한 신부와 맹인 남성이 다른 생존자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 두 사람은 쓰나미로 물에 휩쓸렸는데, 맹인 남성은 신부의 목소리를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 익사를 모면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신부는 떠내려 온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다리를 만들어 생존자들이 더 높은 지대로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신부는 먼저 시각 장애인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갔다. 나중에 이 시각 장애인은 그때 경험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으며 앞을 못 본다는 사실에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애기했다. "제 자신이 강인해진 것 같아요!"

신부는 신이 왜 인류에게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신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결코 화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저 시험일 뿐이죠." (<http://thestar.com.my/news/>

story.asp?file=/2005/1/10/latest/20627SomeIndia&sec=latest)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한 기자는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번 쓰나미가 전세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여겼다. 전세계 각지에서 쏟아진 금전적인 지원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경제 원조가 아닌 참된 목적에 쓰인다고 여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마음을 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의 국가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사실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움직임은 서로간의 차이를 조정해 균형을 잡으려는 조류의 하나로서 긍정적인 정치적 쓰나미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공포 속에서 희망이 일어나고 있다." (http://www.thestar.com/NASApp/cs/ContentServer?pagename=thestar/Layout/Article_Type1&c=ArOicle&cid=1105139414865&call_pageid=968256290204&col=968350116795)

온 인류를 위한 칭하이 무상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중재가 없었다면 인도양 쓰나미 참사는 훨씬 더 치참한 결과를 낳았을 게 분명하다. 우리는 또



한 이번에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스승님의 무한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비극적인 재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면 스승님이 말씀하신 인류의 긍정적인 방향성에 더욱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진보하기를 원할 때까지 이곳 지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다 보면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DVD No. 730 ‘사랑으로 소통하라’에서 발췌)

우리 친구의가 정화됨으로써 이 세상을 계속해서 밝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관문을 지나 황금시대를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549 위대한 성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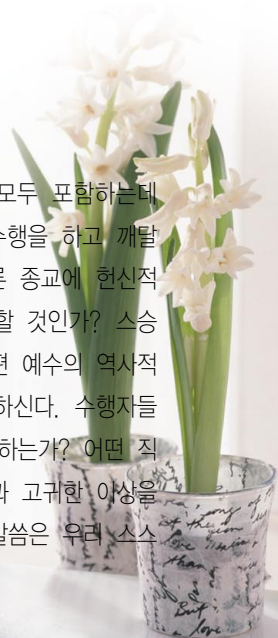
1996. 5. 15.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선철
〈영어 + 중국어 간체 · 번체, 어울라어 자막〉

내용 요약: 스승님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성인은 매우 순수하고 성스럽지만 그들 자신은 자신의 성스러움과 위대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가르치신다. 오래전 스승님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서원하셨을 때 한 다발의 향이 태우셨는데 향은 모두 나선형으로 태워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스승님이 세우신 서원은? 스승님은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동안 어떤 기인들과 어떤 사건들을 겪으셨는가? 스승님은 이 DVD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시는 한편 석가모니 부처가 전생에 황금 원숭이 왕이었을 당시 스스로를 희생해 국왕을 감동시킨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

605 깨달음의 목적

1997. 12. 23. 미국 워싱턴 국제 선사
〈영어 + 중국어 자막〉

내용 요약: 신은 무소부재하며 선악을 모두 포함하는데 왜 우리는 채식의 하고 오계를 지키며 수행을 하고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다른 종교에 헌신적인 가족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대화해야 할 것인가? 스승님은 이 질문들에 상세히 설명하시는 한편 예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논하신다. 수행자들은 결혼과 독신 생활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어떤 직업과 일에 종사하든 우리는 깨끗한 양심과 고귀한 이상을 지녀야 한다, 등 이와 관련된 스승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깊이 돌아보도록 이끌어 주신다.





토고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의 사랑과 즐거움을 전하다

아메간 마우리/ 로메 (원문 영어)

2004년 12월 17일, 18일 로메 센터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SOS 아동 마을에서 환경 미화 및 오락 활동을 가졌다. 이 어린이 마을에는 갓난아기부터 17세까지의 고아, 버려진 아이, 장애 아동이 거주하고 있다.

12월 17일 동수들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먼저 환경 미화 활동을 하며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했다. 이어서 다음 날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노래자랑을 즐기고 이후 한 사람씩 선물을 받고선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마을은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이 두 활동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 마을 거주자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로메 동수들이 마련한 채식 샌드위치도 함께 즐겼다.

이 외 로메 센터는 어린이 마을측에 컴퓨터 4대, 식용유 1통, 비누 두 박스, 쌀 세 포대, 아동복과 다양한 아동용 게임기도 기증했다. 직원들은 동수들의 이번 활동과 필요했던 물품, 특히 컴퓨터를 기증해 준 데 깊이 감동했으며 사형사저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했다.

SOS 어린이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동수들은 애정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온정을 전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스승님의 자비를 통해 이 작은 아이들은 무한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마을의 원장이 보내 온 감사 편지.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 물질적 지원을 베풀어 준 동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코스타리카

크리스마스 기간에 불우이웃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다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2004년 12월 21일 코스타리카 센터의 동수들은 ‘티바스 수르기스 덤프’로 알려진 빈민촌에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원래 동수들은 이번 활동에서 일반적인 한 가구가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양의 쌀과 콩, 식용유, 파스타, 과자 등의 기본 식품이 든 선물 꾸러미를 마을의 모든 가구에 나눠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전날 마을을 방문했던 한 사형의 말에 따르면 다른 자선 단체에서 그 마을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 주었는데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선물 쿠폰을 준비했다.

12월 23일 동수들은 네 팀으로 나뉘어 마을의 네 구역을 맡아 일을 진행했다. 주민 대표자를 통해 티바스 수르기스의 가구 명단을 입수한 동수들은 모든 가정을 방문하며 한 가구 당 선물 꾸러미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한 장씩 나눠 주었다. 같은 시간에 마을 앞길에서는 다른 한 팀이 주민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나눠 줄 만반의 준



비를 한 채 대기하고 있었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저 한 명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을 주민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표했다. 한 사람은 “이 사진 속의 여자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군요. 여기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물품을 분배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적은 생전 처음이에요.”

어린이와 어른 모두 선물을 받고 큰 기쁨을 나타냈다. 사랑하는 스승님 덕분에 그들은 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 또 동수들은 12월 30일 산호세 센터에서 열린 선 행사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코스타리카와 티바스 수르기스 덤프 주민들의 생활이 전면적으로 개선되길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모든 동수들은 신의 영광과 축복 덕분에 평화와 조화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

신의 사랑으로 추운 겨울날을 따뜻하게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오하이오 센터는 신시내티에 있는 ‘드롭 인’ 노숙자 쉼터를 방문해 그곳의 노숙자 수백 명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안겨 주었다. 오하이오에 올 겨울 기록적인 추위가 닥쳐 생활이 어려운 노숙자들은 예년보다 더욱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숙자 쉼터의 책임자는 시설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200개의 선물 꾸러미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전에 오하이오 동수들이 점심을 제공하는 날 보면 불우한 이웃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동수들은 이번에 따뜻한 방한 스웨터, 과자, 사탕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350개 정도 준비했다. 이 선물말고도 스프링롤 400개와 큰 쟁반 20개분의 볶음밥,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음료도 준비했다.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그동안 드롭 인 노숙자 쉼터에서 매우 친숙한 존재가 되어 거주자들과 직원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환영을 받곤 했다. 또 방문할 때마다 보호소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즉시 음식과 선물을 건물 안으로 나르는 일을 도와주곤 했다. 그러니 이번 26일 사형사자들이 쉼터에 도착하자 순식간에 노숙자와 주변의 어려운 주민들로 건물이 가득 찬 건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어서 두 시간 동안 동수들은 설새없이 음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스승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복잡한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섰는데도 그렇게 조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그 중에는 선물 테이블 끝에 세워져 있는 스승님의 법상에 관심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나중에 쉼터의 한 직원은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음식과 선물을 받아 간 건 처음이에요!”라고 얘기했다.

드롭 인 노숙자 쉼터의 모든 사람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승



크리스마스 불우 이웃돕기 선물 꾸러미에 들어갈 새 방한 셔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동수들.

고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불우한 형제들이 음식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오하이오 동수들도 이번에 또 한 번 그들을 도움으로써 봉사와 나눔,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미국 산호세

남을 돕는 무한한 즐거움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년 12월 19일 상쾌한 일요일 오후,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산호세 중심부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모여 집 없는 신의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산호세 센터는 수년 동안 이 공원에서 겨울철 선물 나눠 주기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시 조례에선 정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노숙자들에게 물품을 나눠 줄 수 없도록 했다. 공원에 있던 한 경찰관이 동수들에게 새 조례에 대해 알려 주면서 대신 가까운 교회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주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들은 공원의 한 노숙자는 그 교회로 먼저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 동수들이 교회에 도착하자 목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우리의 의도에 대해 물은 후 주차장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적극 후원해 주었다. 목사는 흔쾌히 협조하며 직접 나서서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었다.

동수들은 거의 100개에 달하는 침낭과 샌드위치, 쿠키가 담긴 밝고 화려한 색상의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 주었다. 선물을 받은 한 신사는 “이전에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과 다른 노숙자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수들의 마음도 행복해졌다. 그러면서 스승님이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우리는 내적으로 연결돼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진실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며 다른 이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우리는 정말 하나라는 가르침을 보다 실감하게 되었다.

산호세 관음 가족은 2004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스승님의 사랑과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는 한편 살아 계신 스승님이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훌륭한 선물을 크나큰 축복으로 여겼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숙자들의 가슴에 기쁨의 웃음을 선사하다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4년 12월 18일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침낭과 따뜻한 재킷, 모자, 양말, 무알콜 음료, 따끈따끈한 볶음 국수 도시락 등 생필품이 든 선물 꾸러미를 샌프란시스코 각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각 꾸러미에는 스승님의 지혜어록이 담긴 행운의 과자와 견본책자도 들어 있어서 노숙자들은 물질적인 혜택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물건을 받은 사람들의 놀란 표정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동수들은 이 구호 활동이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깊이 감동시켰음을 깨닫고 큰 힘을 얻었다. 동수들이 물품을 나눠 주고 있을 때 노숙자들은 “난 이제 신을 믿습니다. 난 이제 산타클로스를 믿어요.”라는 말을 하곤 했다. 동수들은 일부 노숙자들이 길바닥에서 옷과 얇은 천에 의지해 추위를 피하는 광경을 목격하곤 가슴 아파하면서 언젠가는 이들에게도 집이 생기기를 바라며 구호 물품을 통해 최소한의 편의와 스승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비록 수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현실은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히도 근래 들어서 노숙자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일한 끝에 동수들은 가져온 구호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일이 힘들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스승님의 은



총이 언제나 함께했기에 동수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으며 물건을 나르는 트럭에는 웃음꽃이 피곤했다. 스승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새로운 경험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텍사스

불우 이웃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걷다

다이애나 응우옌/ 휴스턴 (원문 영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휴스턴 센터의 동수들은 '생명의 빵' 교회 재단과 조를 이루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곤 했다. 2004년 12월 23일에도 이 전통을 이어나가 이 재단의 노숙자 쉼터에서 도넛과 커피, 담요, 양말, 수건 등을 나누어주고 스승님의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를 상영하였다.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동수들과 마찬가지로 스승님의 사랑 어린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동수들은 이 쉼터를 방문한 후 다시 길가로 나와 고가도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시 한번 구호품을 나누어주었다.

동수들은 12월 30일에도 쉼터를 다시 방문해 담요와 양말, 과자, 수건 등이 든 많은 구호품을 나누어주었다. 또한 휴스턴 사형사저들은 고장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외에 인도양 쓰나미 희생자들을 위해 미화 12,000달러의 성금을 모아 1월 7일 인도네시아로 보내기도 했다.

휴스턴 동수들은 2004년 노숙자들에게 구호품을 나눠 주는 활동 내내 스승님의 사랑과 인도를 느끼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저희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내면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가 조화롭고 스승님이 건강하시길, 그리고 우리 친구의를 정화하길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가난한 사람들과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나누다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원년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기 위해 플로리다 동수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했다. 플로리다 센터의 단

체명상이 있기 전날인 12월 18일 밤, 한 사형이 코스타리카 동수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코스타리카 사형은 자기 센터의 크리스마스 구호 활동 계획에 대해 열성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열정은 마치 감염력이 있는 듯 플로리다 동수들은 구호 활동을 통해 자기 고장의 노숙자들에게 생활필





수품을 전해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다. 이어서 동수들은 상인들을 만나 몇 시간 만에 모든 물품들을 구매했다. 여기에 스승님의 사진을 새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카드를 인쇄해 각 선물에다 집어넣었다. 이 모든 준비가 하룻밤 새 이루어져 다음날 단체명상 전에 플로리다 센터에 물품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

단체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은 위생용품과 양말, 크리스마스 카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담아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한 후 크리스마스에 전달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레 수온주가 떨어져 동수들은 서둘러 담요를 추가로 구매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정상 가격의 1/4 값으로 담요를 파는 도매상인을 만나 우리는 때맞춰 선물할 담요를 구할 수 있었다.

플로리다 센터는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외에 전통적인 선물 교환 행사와 인도양 쓰나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일 행사도 열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주는 기쁨을 체험하며 여러모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을 실천한 동수들은 모두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노숙자 친구들에게 전할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플로리다 동수들.

캐나다 퀘벡

신의 무량한 빛이여, 영원히 빛나라

몬트리올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의 황금시대 첫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올드 브루어리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 108년의 역사를 가진 이 빈민 구제소는 몬트리올 시내와 외곽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주거지와 음식을 제공해 왔다. 2004년 12월 19일 동수들은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여러 상자의 통조림 수프와 라면, 옷가지를 가지고 이 쉼터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동수들은 캐나다 퀘벡에 있는 옥스팜(OXFAM)을 통해 아이티 고나이브(Gonaives)의 수재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외 황금시대가 시작되면서 현재의 이 과도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몬트리올 센터는 2004년 크리스마스부터 2005년 신년 휴일 기간까지 매일 단체명상을 하고 선일 행사도 개최해 지구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화와 신의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하였다.

태국 방콕

무조건적인 사랑이 재소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다

방콕 뉴스그룹

2004년 11월, 겨울이 다가올 무렵 방콕 동수들은 나콘랏차시마 지방의 시쿠 지구에 있는 클롱파이(Klongphai) 일반 교도소와 특수 교도소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어 동수들은 두 기관의 소장들에게 교도소를 방문해 연료한 재소자들에게 따뜻한 옷과 기타 일용품, 그리고 채식을 제공하고 강연 비디오 상영 및 명상법 소개를 하고 싶다는 허락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교도소 측의 승낙을 받은 후 동수들은 11월 28일 클롱파이 특수 교도소를 방문해 대부분 친인척이 없는 연료한 백 명의 여성 재소자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고 위로했다. 먼저 인사말과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낭송한 후 따뜻한 의복과 양말, 칫솔, 치약, 시리얼,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적힌 카드,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전단지 등이 포함된 실용품 꾸러미를 선물했다. 이어서 스승님을 소개하는 비디오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자유의 참된 의미'를 상영했다. 상영을 마친 후 한 재소자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 마치 스승님이 자

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그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얘기했다. 이 외 동수들은 스승님의 경서와 강연 DVD를 개인에게 나눠 주고 교도소 도서관에는 각국언어로 된 견본책을 기증했다.

한편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관심 있는 재소자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해서 동수들은 방편법을 전수하기 위해 다른 날을 정해 승인을 받으라는 교도관들의 제의에 따랐다. 마지막으로 재소자들은 사형사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해 온 채식 점심 식사를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후 12월 2일 방콕 동수들은 클롱파이 일반 교도소를 방문해 방한복과 다른 필수품이 담긴 171개의 꾸러미를 전달했다. 마침 이날은 교도소 당국에서 친척들에게 재소자들과 1주일간 같이 보내도록 장려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이어서 동수들이 계획한 행사는 치르지 못했지만 교도소 도서관측에 스승님의 책과 DVD를 기증하고 왔다.

방콕 동수들은 클롱파이 일반 교도소와 특수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히 여겼다.





홍콩

무한한 빛이 노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12월 말 북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홍콩 동수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옷과 샌드위치, 견본책자가 담긴 수십 개의 선물 꾸러미를 서둘러 준비해 옌조우 고가도로 일대와 룡수토우 공원으로 향했다.

중국에서 온 몇몇 동수들도 동참한 가운데 먼저 옌조우 고가도로 부근에서 노숙자들을 찾았다. 그곳에는 어울락인들이 한데 모여 추운 겨울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모두들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을 고맙게 받으며 다른 노숙자들이 있는 곳도 알려 주었다. 그 중 한 어울락인은 견본책자 표지의 스승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는 포모사에서 뵈 적이 있는 우리 스승님이 같은 어울락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매우 반가워하며 동료들에게 “이 스승님은 제자들이 많아!” 하고 말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룡수토우 공원에 도착해 고가도로 밑 터널에 살고 있는 많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옷과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그후 이틀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동수들은 다시 옌조우 고가도로 밑을 방문해 많은 노숙자들에게 두터운 면 방한복과 목도리를 나누어 주었다. 스승

님의 가르침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들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이며 도를 얻는 방법이군요!”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의 빛이 노숙자들을 비추는 사이에 동수들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노숙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보면서 동수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더욱 크게 느끼고 스승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더욱 감사하는 한편 현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깨달았다.



인도네시아

진정한 사랑의 선물로 슬픔이 사라지다

인도네시아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2004년 11월 26일 리히터 6.4의 강진이 파푸아(Papua) 주의 나비레(Nabire) 지역에서 발생한 데 이어 며칠 동안 여진이 계속돼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 지진으로 많은 가옥이 무너졌으며 항구와 공항, 전기 시설, 도로, 병원, 몇몇 정부 기관 등의 공공시설도 파괴되었다. 또 일부 벽지 지역은 우물이 흙탕물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재난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반면 원주민들은 재난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정신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동수들로 조직된 구호 팀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피해 지역에 도

착해 구호 물품들을 나눠 줄 수 있었다.

텐트와 모기장, 담요, 식품, 의약품, 옷 등이 포함된 구호품은 고아와 학생, 환자, 재소자, 경찰관, 피해 가정 등 시민들과 주변의 키미(Kimi)와 라가레(Lagare) 지역의 이민 사회에도 분배되었다.

동수들은 적십자사와 공무원, 지역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작업을 진행했다. 이재민들은 이토록 많은 구호 물품을 보내 주신 신께 감사드렸으며, 그 중 많은 이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벽지에 사는 어른과 아이들은 마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풀린 것처럼 기쁨으로 눈물과 웃음이 범벅이 된 채 손뼉을 치는 등 열정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하면서 나비레가 스승님의 지혜로 꽃피우는 축복을 받기를 희망했다.

나비레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마칠 무렵 동수들은 이재민들에게 캔버스 천 500장과 담요 1천 장, 그리고 많은 재활용 옷과 약품, 과자를 함께 전해 주었다.

이 외 12월 2일에는 자바 동부의 블리타르(Blitar) 지방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곳의 한 동수가 이재민 수용소와 연락해 본 결과 식량은 충분하지만 양념류와 화로용 연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라바야 센터와 말랑(Malang-수라바야에서 한 시간 거리)의 동수들은 수라바야에서 약 4시간 걸리는 블리타르로 향했다. 블리타르로 가는 길이 진흙투성이에다 매우 험해서 동수들은 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구호 물품을 하루 일찍 말랑으로 보냈다.

동수들은 지역 적십자사와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장 피해가 큰 마





을인 티르토레요(Tirtorejo)의 긴급 대피소에서 화로용 연료 400리터, 식용유 10통, 소금 10포대, 양조간장 48병, 즉석 볶음밥 양념 72봉지, 커피 큰 포장 2개, 과자 2컨테이너 등 이재민들에게 많이 필요한 구호 물품을 나눠 주었다.

나비레와 블리타르 지역의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들에 대한 스승님의 참된 사랑에 감사드린다.

필리핀

태풍 이재민들에게 사랑을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12월 2일, 태풍 난마돌이 필리핀 열도의 루손(Luzon) 섬 동부를 휩쓸었다. 이 지역은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태풍이 네 번이나 지나간 터라 안 그래도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다. 이번 태풍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다. 국제 사회는 다양한 지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외부와 교통이 두절된 벽지 지역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재난 소식을 접한 필리핀의 어울락 동수들은 즉시 구호 활동을 개시했다. 12월 7일 구호 물품을 차에 싣고 9시간을 달려 마닐라 북동쪽에 있는 오로라(Aurora) 주의 딩가란(Dingalan) 촌에 도착한 동수들은 이곳이 다른 단체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홍콩과 타이베이에서 몇 명의 동수들이 마닐라에 도착해 구호 활동에 합류했다. 구호 팀은 그날 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개별 포장을 끝낸 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칠고 험한 길을 달려 피해 지역으로 향했다. 이어서 12월 9일 새벽에 딩가란 중학교에 도착한 동수들은 모기장과 슬리퍼, 옷, 가벼운 담요, 유아용 분유, 라면 등 다른 단체에서 주지 못한 물품들을 제공했다.

물자는 순조롭게 배분되었다. 준비해 간 모기장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품목이었으며 어린이들은 옷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다. 구호



팀은 다음으로 황폐화된 팔틱(Paltic) 마을을 방문했다. 수차례의 태풍으로 이곳의 지형은 완전히 변해 버렸고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잃은 상황이었다. 동수들은 마을 촌장의 도움을 받아 천여 개가 넘는 구호품 꾸러미를 이 지역에 나누어 주었다.

퀘존(Quezon) 주는 앞서 말한 두 지역에 비해선 국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다리가 무너져 인펜다(Infenda)와 레알(Real) 읍으로 가는

길이 두절된 데다 인펜다의 저지대가 2미터 가량 침수되어서 이곳 주민들은 하루 종일 미군 헬기로 공수되는 식품에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길이 복구되자 우리 구호팀의 차량은 그 길을 따라 두 번째로 수해 지역에 도착했다. 동수들은 밤새도록 쌀과 식품을 포장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인펜다와 레알은 관광 산업으로 번성한 곳이었고 일상생활에도 거의 어려움이 없는 데다 이미 미군 부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우리는 나눠 주고 남은 물자를 팔틱 지역에 가져다주기로 했다. 동수들은 수해 지역 깊이 들어가 각 가구마다 구호품을 직접 전달했



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감사를 받았다.

2주일 만에 총 7천여 개의 구호품 꾸러미를 나누어 준 동수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한 채 24시간 내내 밤낮으로 일했고 때로는 하루 종일 끼니를 거르기도 했지만 피곤하거나 배고픈 줄도 몰랐다. 태풍 난마돌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형사저들은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포모사 종합

■ 타이베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온 희망의 봄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음력설이 다가오기 전 타이베이 동수들은 스승님의 박애, 사랑의 정신에 고무돼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살핌과 온정을 전하는 일련의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을 펼쳤

다. 이 활동에 동참한 약 300여 명의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먼저 타이베이 시 사회복지국을 방문해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정보를 얻은 후 사람들이 잘 모이는 거리의 게시판에 이번 행사 시간과 장소 등 일정을 공고했다.

2004년 12월 말 한랭전선이 타이베이를 강타할 무렵, 완화 지구 사회



복지 센터에서 지역 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옷이 가장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자 타이베이 센터는 즉시 12월 28일 15상자의 두 겹고 따뜻한 겨울 재킷을 전달했다. 사회국의 가두 설문 조사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정한 후 사회국의 협조를 받아 쿵후화와 목욕세제, 샴푸와 면도기 등의 구호품을 노숙자 갱생 시설과 노숙자 쉼터 등에 전달했다. 그 중 쿵후화는 노숙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첫 걸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동수들은 새해 선물 꾸러미도 5백 개 준비해 노숙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 꾸러미마다 따뜻한 털모자와 장갑, 양말, 치약, 칫솔, 수건, 사탕, 과자, 빵, 샌드위치와 따뜻한 음료가 들어 있었으며 영혼의 양식인 스승님의 뉴스잡지도 빠지지 않았다.

타이베이 센터는 2005년 1월 6일 아침 동수들이 보시한 60상자의 겨울옷을 중허 노숙자 쉼터에 전달하고 오후에는 완화 지구 사회복지 센터에 다시 한 번 새해 선물을 전달했다. 이 선물은 사회국 사회사업부의 양리우치 부장과 노숙자 린 선생이 노숙자들을 대신해 수령했다. 양 부장은 우리 협회의 회원들이 수년 동안 타이베이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며 끊임없이 물질적·영적으로 성원해 준 데 대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했다.

그날 저녁 동수들은 타이베이 사회국 소속의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몇몇 사회사업 부원들의 안내를 받아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몇 군데를 방문해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다. 그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매우 고마워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동수들의 이번 방문에는 노숙자들에 대해 연구 중인 대만 국립 과학기술 대학교의 양 교수와 대만 사범 대학교의 판 교수, 대학원생들도 함께했는데, 이들은 타이베이 동수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때로 위험할 수도 있는 노숙자들에게 성심을 다해 선물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말을 잃었다. 그들은 나중에 “여러분, 정말 고생하십니다.”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후 1월 14일 아침, 동수들은 다시 중

허 노숙자 쉼터의 천쉬에칭 소장과 노숙자 대표 장 선생에게 백여 개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천 소장은 한랭전선이 닥치는 시기에 따뜻취 지원의 손길을 보내온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노숙자 대표인 장 선생은 더욱 열성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러분이 전해 주신 실용적인 물품들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견본책자, 뉴스잡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른 한 팀의 동수들은 그날 저녁에 타이베이 노숙자 갱생 시설인 ‘평화의 집’을 방문해 그곳 사람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타이베이 센터는 사회국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은 복지 단체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 독거노인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수들은 1월 21일 아침 손난로와 보온병, 쌀, 영양 식품 등과 더불어 스승님의 뉴스잡지를 준비해 몇몇 사회국 직원들과 적극적인 한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완화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독



거노인을 방문하고 물질적·영적 도움과 관심을 전했다.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에 걸친 겨울 구호 활동 중 마지막 장소는 타이베이 현 바리 향 화푸 산에 있는 아이웨이 요양원이었다. 이곳은 타이베이 동수들이 지난 2004년 9월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동수들은 이곳 직원들이 요양원 거주자들이 컴퓨터 자판 조작을 통해 손가락 운동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할 때 동수들은 요양원에 필요한 6대의 컴퓨터와 성인용 기저귀 열 박스를 가져갔다.

를 가져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기간 중 신의 파스한 사랑의 물결이 타이베이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번 2004-2005 겨울 구호 활동을 통해 노숙자들과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인정을 느끼기를 바라며, 또한 사회에서 잊혀지는 이 불우한 형제자매들이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희망의 봄을 열어 가기 바란다.



■ 신주

사랑을 실천하기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1월 6일, 신주 동수들은 미아오리 현의 유안 아동보호원과 신주 현 가톨릭 화광 지능계발 센터, 신주 시의 성 요셉 특수교육원, 그리고 중퇴한 청소년과 결혼 가정 자녀, 비행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적의 집'을 방문해 이 기관들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선물과 스승님의 관심을 전해 주었다. 그 중 유안 아동보호원의 주임은 동수들이 가져온 생필품을 받은 후 스승님의 자선 활동에 대한 아동보호원의 감사를 담은 것말을 특별히 선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관들과 노숙자 갱생 보호소는 사회사업가들을 통해 신의 사랑이 표현된 확실한 성과이다. 각 기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보살피고 이들이 잘 성장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황금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인류가 계속해서 이런 박애 정신을 실행하고 지구의 모든 곳이 따뜻한 자비심으로 채워지길 희망해 본다.

■ 타이난

노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다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난 센터는 2004년 말과 2005년 한겨울 동안 사랑과 온정을 전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과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다. 동수들은 2004년 12월 26일과 29일, 2005년 1월 14일과 25일, 29일에 바이허 상이군인의 집과 옌수이 읍의 주푸 노인복지원, 신잉 시의 타이즈궁 양로원, 신더츠화 지체장애학교, 신잉 병원 부설 양로원을 방문했다.

이번 활동에서 동수들은 먼저 스승님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한 후 멋진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공연 중 스승님의 『무자시』 낭송은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몇몇 어르신들은 시를 낭송한 사저에게 『무자시』를 한번 더 낭송해 주겠냐고 하면서 시 낭송하는 법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스승님이 완전히 깨달은 스승으로 중생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고 찬탄하면

서 스승님의 짧은 시에는 인생의 무상함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애기했다. 이 밖에 스승님의 자비심과 사랑에 감동된 타이즈궁 양로원의 탕위 에메이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으며, 주푸 노인복지원의 직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배워 복지원의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보살피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 평등

극빈 노인들을 위문하다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1월 23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동수들은 평등 현 완루안 향 신즈 촌에 사는 극빈 노인들을 재차 위문해 복된 새해가 되길 기원했다. 이날 동수들과 함께 연로한 주민들에게 담요를 전달한 마을 촌장은 우리 단체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베풀어 준 것에 감사했다. 노인들은 담요를 받고 크게 기뻐하고 흡족해했다.

황금시대 2년이 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다가오는 해에는 모두들 신의 축복을 받아 부족함 없이 심신과 영혼이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빈다



감사 편지

수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이 추운 겨울, 귀 협회가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쁩니다.

2004년 10월 23일 니가타 중부의 큰 지진으로 오지야 시에서 12명이 사망하고 전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 당시 귀 협회가 베풀어 주신 애정 어린 정신적·물질적 원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시민들에게 있어서 귀 협회의 지원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두 달이 흘렀습니다. 임시 보호소로 뿔뿔이 흩어졌던 주민들은 현재 원래대로 일상생활을 재개하고 우리 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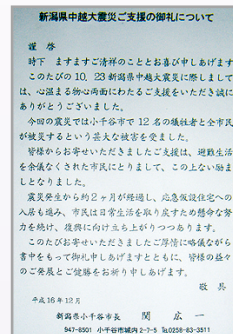
이 편지로서 귀 협회의 온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또한 언제나 평안하고 건강하며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평성 16년 12월

니가타 현 오지야 시 시장 세키 히로카즈 배상

니가타 현 오지야 시 조나이 2-7-5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전세계 재난 구호 활동 일람표

수혜국	날짜(달)	활동 내용	지출 금액	미화 환산 금액	참고 뉴스잡지
코스타리카	2월, 4월, 5월, 12월	티바스 수르기스 뚝뚝 빈민촌에 일용품 전달, 주민 생활 여생건 개선을 위한 도로 및 다리 개보수 작업	콜론 1,731,136.55	미화 3,877.60달러	150, 152, 156
태국	4월	수안 플루 파타나 마을의 화재 이재민 구호 활동	바트 27,198.25	미화 695.79달러	151
자메이카	9월	허리케인 및 홍수로 인한 이재민 구호 활동	미화 10,027.00달러	미화 10,027.00달러	154
도미니카 공화국	9월	허리케인 및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미화 28,679.00달러	미화 28,679.00달러	154
그레나다	9월	허리케인 및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미화 10,000.00달러	미화 10,000.00달러	154
아이티	9월	허리케인 및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미화 40,000.00달러	미화 40,000.00달러	154
수단	9월	내전으로 인한 난민에게 성금 전달	미화 40,000.00달러	미화 40,000.00달러	154
중국	9월	스추안 성 북서부 지역의 홍수 수재민 구호 활동	인민폐 167,819.30	미화 20,374.33달러	154
일본	10월	허리케인 및 지진 이재민 구호 활동	엔화 1,920,194.00	미화 18,483.98달러	155
미국	9월부터 10월	플로리다 허리케인 및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미화 14,646.37달러	미화 14,646.37달러	154
파나마	9월부터 10월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미화 7,900.00달러	미화 7,900.00달러	154
러시아	9월부터 10월	북오세티아 공화국의 학교 인질 사태 피해자 돕기 활동	루블 996,000.00	미화 34,110.00달러	154
인도	9월부터 10월	인도 북부 수재민 구호 활동	루피 1,350,001.00	미화 30,000.00달러	154
인도네시아	11월	나비레와 블리타르의 지진 및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루피아 111,849,506.00	미화 12,157.56달러	156
필리핀	12월	태풍 난마돌 이재민 구호 활동	페소 1,713,020.00	미화 30,589.64	156
포모사	1월부터 12월	매월 극빈 가정에 정기적인 성금 전달	NT 769,000.00달러	미화 23,303.03달러	151, 153, 155, 156
	1월부터 12월	전국 자선 활동 및 공익 활동	NT 1,152,258.00달러	미화 34,916.91달러	151, 153, 154, 155, 156
	7월부터 12월	태풍 민들레, 에어리, 난마돌 이재민 구호 활동	NT 544,820.00달러	미화 16,509.70달러	153, 154, 155, 156
			총계	미화 376,270.91달러	

Quan Yin Web Sites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다양한 언어로 된 여러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줄 뿐 아니라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과도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각국 언어별 『즉각 깨닫는 열쇠』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전자책/인쇄용 포맷을 다운받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 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51-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888@hotmail.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l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hmail@yahoo.co.uk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르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siza.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vif.com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ngnuyenvif@vif.com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cuscoentro@yahoo.com	
		jsung22@shaw.ca	리마	센터	51-1-4716472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qycontactperson@yahoo.ca			edyter@viabcp.com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yentnguyen2002@yahoo.com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 칠레					punocentroperu@yahoo.es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트루히요	Mr. & Mrs. Ra l Seugra Prado	51-44-221688	
		laserenacenter@hotmail.com			rsp.trujillo@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 살바도르			
		chilecenter@hotmail.com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quijano_manuel@yahoo.es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 섬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Mr. Ray Alibocus	1-868-637-1054	
		diachadicha@hotmail.com			alibocus@tstt.net.tt	
★ 코스타리카			★ 미국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s. Laura Chen	506-3632-748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lauracmesa401@hotmail.com			kennynngoaz@hotmail.com	
★ 온두라스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bobedj@cox-internet.com	
★ 멕시코			캘리포니아 :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eternalmaster2002@yahoo.com.mx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tllin54@hotmail.com	
		cmpkamelkamel@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SanGabriel99@hotmail.com	
		tcenter@contactodirectocondios.org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mtycenter@starmedia.com			saccenter.ca@usa.com	
★ 니카라과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quanyinsd@juno.com	
		roxanavet@hotmail.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leone@hotmail.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sfcenter@hotmail.com	
		ec_py2002@yahoo.com.ar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 페루					Sophie.lapaire@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미주리 :		
	Edgar-Teresa@worldnet.att.net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r. Loc Petrus	1-510-813-2300			MSteck5208@aol.com
	petrusl.2k4@gmail.com		*콜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gchen@umr.edu
	torahi@ureach.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플로리다 :					croberts@lps.org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네바다 :		
	Thaidbzad@msn.com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tls1095@earthlink.net				c_newjersey@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ekalbekim@yahoo.com				JohnChou@ymusa.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georgiacenter@hotmail.com				anawarskas@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dong@phys.columbia.edu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hawaiictr@hotmail.com				dcouch@rochester.rr.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DorothySakata@aol.com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ohiocenter@yahoo.com
	caominhtran@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wismeye@aol.com
	Duchanh@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ltran2292@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오리건 :		
	Fuji.Nguyen@ky.gov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oregon_center90@yahoo.com
	jlfontenot@hotmail.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youping320@yahoo.com
	marylandcenter@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메사추세츠 :					DiepAshleyPa@aol.com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shinemound@earthlink.net		텍사스 :		
	Ms. Gan Mai-Ky	1-508-791-7316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jjdawu@yahoo.com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mading02000@yahoo.com				tranduongdean@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quachmn@yahoo.com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t.mecha@comcast.net			joyandlove3@hotmail.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 인도		
		water96@yahoo.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Mr. Jimmy Nguyen	1-972-206-2042			shiva@cal.vsnl.net.in
		JimmyHNguyen@yahoo.com	★ 인도네시아		
*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발리	센터	62-361-231-040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smch_bali@yahoo.com
		cadamson@houston.rr.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wibawa001@yahoo.com
		cuc-le@houston.rr.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smch-jkt@dnnet.net.id
		robert.yuan@hp.com		Mr. Tai Eng Chew	62-21-6319061
*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cte@envirotec.co.id
		lethong@hotmail.com		Ms. Lie Ik Chin	62-21-6510715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herlina@ueii.com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anhhy@hotmail.com			hai@cbn.net.id
*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liem_le23502@yahoo.com			ketut@sinarماس.co.id
워싱턴 :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yudi_wartono@telkom.net
		benptran@aol.com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Edward Tan	1-206-228-8988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edtan@usa.com			smch_medan@hotmail.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sumaemc@yahoo.com			ahimsasb@indosat.net.id
★ 푸에르토리코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harry_1@sby.dnet.net.id
		disnalda@caribe.net	육아카르타	Mr. Madyana Putra Augustinus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아시아 ***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 포모사			★ 일본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pe.light@msa.hinet.net			divinalv@mth.biglobe.ne.jp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shloh@ndmctsg.hk.edu.tw			tateyama_lg@yahoo.co.jp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lotus@sky.plala.or.jp
★ 홍콩	센터	852-27495534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칼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 한국					klsmch@tm.net.my
	출판사	031-772-9250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chinghaiKpt@Yahoo.co.kr			klsmch@yahoo.com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페낭	센터	604-2285853
		houmril@kornet.net			pgsmch@pd.jaring.my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goldenseoul@yahoo.co.kr	★ 몽골		
	유태인	02-795-3927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baasandamba@yahoo.com
		chinghaibusan@hanmail.net	바카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송호준	051-903-4552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황상원	051-805-7283	★ 네팔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shc5824@hanmail.net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신현창	063-254-5824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ajaystha@hotmail.com
	이재문	032-244-1250	포카라	센터	977-61-28455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chinghaidaegu@hanmail.net			neupanebishnu@hotmail.com
	김익현	053-633-3346		Mr. Shiva Bastola	977-61-28255
	한선희	053-767-5338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차재현	053-856-3849	★ 필리핀	마닐라 센터	manilach@hotmail.com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김수동				chinghai@singnet.com.sg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조명대	061-394-6552	★ 스리랑카		
		smgwangju@naver.com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samantha_nbt@zeynet.com
	김삼태	054-821-3043	★ 태국		
청옥	청옥 센터	054-673-7353	방콕	센터	662-674-2690
★ 라오스					bkk_c@hotmail.com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somboon_9@hotmail.com			66-2-5914571
★ 마카오	센터	853-532231			edasnlad@stou.ac.th
		macau_center@e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nian	66-50-332136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siriwanli@hotmail.com
★ 말레이시아			콘캔	센터	66-43-378112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송크라	센터	66-74-323694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99-12272892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9321920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Nguyen Ngoc Trung	00-31-626478716
		Quan-Am@chell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4273364
	Ms. Dora Seres	36-1379-1924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oslo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호주		
★ 스페인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leonadelaide@hotmail.com	
		Madridcenter@yahoo.es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s. Lidia Kong	34-91-5470366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laudiosilvachile@yahoo.es			ctieng@telstra.com	
말라카	Mr. Wang Ya-King	34-95-2351521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dlch136@hotmail.com	
	Mr. Yu Xi-Qi	34-96-3347061	바이런베이/			
		valenciachinghai@yahoo.es	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 스웨덴					ray_jule@bigpond.net.au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Angelholmswe@yahoo.com			smcanberra@hot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sweden1@tele2.se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말뚝	Mr. & Mrs. John Wu	46-40-215688			rosrobbery@aol.com	
		john.wu@bolina.hsb.se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phongloveme@yahoo.com	
		mats.gigard@telia.com		Mr. Alan Khor	61-3-9857-4239	
★ 스위스					ckhor@bigpond.net.au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퍼스	센터	61-8-9242-1189	
		fengli@ilo.org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Ms. Klein Ursula	41-22-3691550			daveb@iinet.net.au	
		uklein@tiscali.ch		Mr. Ly Van Tri	61-8-9242-2848	
★ 영국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shahidm@ntlworld.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런던	센터	pnl@matters19.freemove.co.uk			anbinh_sydney@yahoo.com.au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 뉴질랜드			
	Mrs. C. Y. Man	44-1895-254521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chuk_yee_man@hotmail.com			takahide@xtra.co.nz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Mr. Peter Morrin	642-172-2776	
		janet.weller7090@ntlworld.com			ptr@ihug.co.nz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Mr. Chang Jen-Hor	64-9-274-9298	
		stmchwo@hotmail.com			changjenhor@yahoo.com	
★ 스코틀랜드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nzchchsmch@hotmail.com	
		lillig2002@yahoo.co.uk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 오세아니아 ***					shale@ihug.co.nz	

스승을 한 번 봐도 해탈한다

청하이 무상사/ 1992. 2. 24.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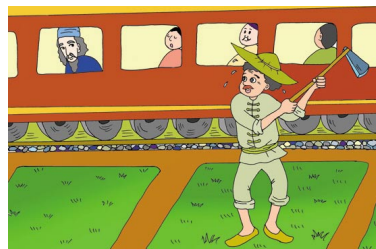
비디오테이프 No. 216

스승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승은 세속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구루, 스승을 매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스승 보기를 좋아하고 단 한 번 눈길을 받아도 좋아합니다.

나는 한 인도 스승을 알고 있는데, 그는 1940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번은 그 스승이 생전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농부가 그가 탄 기차의 오른쪽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 창문을 통해 밖을 보던 스승과 때마침 눈이 마주쳐 1초간 스승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지나갔지요. 사흘 후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스승이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나타난 것을 보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스승이 나타나셨다. 그분께선 지금 나를 위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침 농부의 곁에 있던 그 스승의 한 제자가 농부의 설명을 듣고는 “그 스승이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맞다고 했습니다. 딱 한 번 봤을 뿐인데도 농부는 해탈한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장보살은 살아 있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는 이는 누구나 돌보겠노라고 발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살, 성인의 방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을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인과의 신비 1994. 1. 2. 태국 방콕

내용 요약: 스승님은 우리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왜 윤회하는가? 윤회의 부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스승의 꾸지람은 스승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가? 스승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시고 당신이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 의상 디자인, 작곡을 시작하게 된 연유에 대해 밝히시는 한편 우리 모두에겐 많은 잠재된 재능이 있다고 환기시키시면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와 재능이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43 부처의 슬픔 744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

<어울락어 내레이션 + 20개 국어 자막. 재판에 새로 들어간 언어-불가리아어, 체코어, 핀란드어, 독일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필리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부처의 슬픔’과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 이 두 편의 음악 DVD는 칭하이 무상사의 아름다운 시를 가사로 한 노래를 선보인다. 사랑의 경이로움, 이별의 아픔, 신에 대한 갈망 등이 표현된 무상사의 시구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영혼을 고양시킨다. 걸출한 어울락 작곡가들이 작곡하고 유명한 어울락 가수들이 노래한 각 곡들은 미국과 어울락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장면들을 곁들여 MTV 형식으로 편집되었다.

주요 내용: 포모사 시후 단오절 국제 선삼, 1995. 6. 2.-4.

1. 세계 평화의 길
2. 세상을 위해 세상 자체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버려라

유럽 국제 선삼, 1995. 4. 28. & 1995. 8. 25.-26

3. 올바른 개념은 수행의 체현만큼 중요하다

포모사 시후 중추절 선삼, 1995. 9. 8.

4. 명상의 힘으로 세상을 평화하라

포모사 시후 칭하이데이 국제 선삼, 1995. 10. 26.-27.

5. 성공적인 연출 방법
6. 진정한 불로장생

포모사 시후 칭하이데이 국제 선삼, 1996. 2. 18.-21.

7. 관념의 자기반성
8.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남을 도우라

캄보디아 프놈펜 선삼, 1996. 3. 24. & 3. 27.-28.

9. 선 유머
10. 스승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책

『삶을 다채롭게』-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열쇠 <영문판, 중문판>

『삶을 다채롭게』는 수행자들이 흔히 갖는 의혹과 질문에 대한 칭하이 스승님의 해답을 모아 놓은 선집으로서, 인생, 과학, 수행, 결혼, 교육 등에 관한 주제가 두루 망라되어 있어 한 편씩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신간은 분쟁과 부침을 겪는 인생의 여정 동안 지상에서 정토를 이루는 최고의 지침을 제공한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채롭고 재미있는 삶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는 인생의 일본 일초를 보람차고 긍정적이며 행복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한편 또한 수행을 통해 얻은 생기 넘치고 활기차고 즐거운 정신으로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법을 배우고 지혜와 재능을 겸비해 가정과 수행을 다 돌볼 수 있는 ‘생활 예술가’가 되어 지상에서 풍성하고 다채로우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후광이 너무 꼭 쏘요!

즐거움을 주는 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의 유머집

<영문 및 중문 대조 편집>

칭하이 무상사는 딱딱한 강연 대신 종종 비유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또한 때로는 농담을 통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도록 하기도 하신다. 스승님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로 말씀하신 104가지의 농담을 수록한 이 책은 영문과 중문이 함께 대조 편집되었다. 아름다운 컬러 인쇄와 생생한 그림이 매력적인 이 책에는 본문에 나오는 농담 45개가 담긴 오리지널 CD도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어 독자들은 생생한 그림과 함께 CD를 들으면서 스승님의 유머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스승님의 유머러스한 구술과 쾌활한 웃음소리를 함께 듣고 있노라면 해마다 즐거워질 것이다!

